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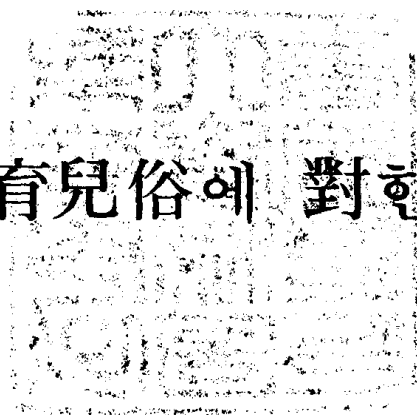
## 濟州島の 育兒俗에 對한 研究

家政科教育專攻

文 載 喜

1987

# 濟州島의 育兒俗에 對한 研究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86年 11月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印

家政科 教育專攻

文 載 喜

# 文載喜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成 淑 子



審查委員

이성인



이병권



박성연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 目 次

論 文 概 要.....	vi
I. 緒 論 .....	1
A. 研究의 目的 .....	1
B. 研究의 問題 .....	1
C. 研究의 制限點 .....	2
II. 理論的 背景 .....	3
A. 文化와 育兒方式의 差異 .....	3
B. 授乳, 離乳, 排便訓練 및 子女觀 .....	6
C. 韓國의 傳統的인 育兒法 .....	9
D. 濟州島 文化Pattern의 特色 .....	15
III. 研究의 方法 .....	19
A. 研究 對象 .....	19
B. 道具 및 節次 .....	21
IV. 研究結果 및 考察 .....	23
A. 解産前後의 習俗 .....	23
B. 授 乳 .....	41
C. 離 乳 .....	45
D. 排便訓練 .....	48
E. 誕生日 風俗 .....	52
F. 子 女 觀 .....	54
V. 要約 및 結論 .....	64
A. 要 約 .....	64
B. 結 論 .....	66
參 考 文 獻 .....	69
附 錄 .....	73
英 文 抄 錄 .....	79

## 表 目 次

1. 조사대상자 연령에 따른 표본수 .....	20
2. 거주지에 따른 표본수 .....	20
3.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성격 .....	21
4. 태몽신뢰도 .....	24
5. 출생아의 성별에 따른 태몽의 대상물 .....	25
6. 태몽의 길과 흉.....	26
7. 금 기 음식 .....	28
8. 금 기 사 상 .....	29
9. 임신부의 신체적 상황으로 예지하는 법.....	30
10. 형의 신체적 상황이나 행위로 예지하는 법.....	31
11. 기        타 .....	31
12. 음식에 의한 순산법 .....	32
13. 치성의례에 의한 순산법 .....	33
14. 해산수발담당자 .....	35
15. 산모의 산욕기간 .....	36
16. 태반처리법 .....	38
17. 유 도 방 법 .....	44
18. 이유개시기 .....	45
19. 이유담당자 .....	46
20. 이 유 방 법 .....	47

21. 배변훈련 시기 .....	49
22. 배변훈련 담당자 .....	50
23. 딸, 아들에 대한 선호도 .....	56
24. 남아선호의 이유 .....	56
25. 대리계승자 .....	57
26. 노후에 부양받고 싶은 대상.....	59
27. 부모가 원하는 자녀들의 효도형태 .....	60
28. 자녀의 이점 .....	61
29. 자녀의 불리점 .....	61
30.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	62
31. 가정교육의 담당자 .....	62
32. 교 육 내 용 .....	63

## 論 文 概 要

育兒方式은 어느 사회에서나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유형을 지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사회 어린이들의 여러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육아방식을 통해 한국인의 人性이 형성되고 있고, 또한 더 좁게는 지역적으로 독특한 육아방식에 의해 養育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는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육아에 대한 지식과 개념, 육아행동까지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 서구문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이전, 과거 濟州島 토착민들 사회에서 유지되어 왔던 육아에 대한 개념과 관습 등이 현대 육아법에 의해 점차로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이와같이 점차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제주지방의 전통 육아법을 정리·보존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육아범주로 해산전후의 습속과 자녀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육아행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육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조사대상은 현재 제주도내의 성읍리, 남읍리, 보성리 3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高령층 부녀자 33명을 대상으로 하여 육아에 대한 개념과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답습되어 온 慣習에 대한 것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1986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8일간 현지에서 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로는 본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解産前 習俗에 있어서의 제주도 부녀자의 태몽신뢰도는 신뢰하는 경우가 76%,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6%, 반신반의가 18%로서 신뢰하고 있는 편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태몽에 있어서 남아는 크고 억센 숫놈들

이며, 여아는 반대로 작고 연약한 것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2. 解産後 習俗에 있어서의 해산수발 담당자는 24 명이 본인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産의 고통과 함께 스스로가 해결하고 있다. 분만장소는 대개가 自家의 房안이며, 보릿짚을 깔고 해산하였다. 또한 태반처리법으로는 28 명이 불태우고 있고, 5 명은 땅속에 묻고 있다. 해산후 산모의 식사는 응답자 전체가 메밀수제비를 먹고 있는데, 이는 타지방과는 다른 특이한 산후 음식으로 여겨진다.

3. 제주도에서의 授乳方法은 거의가 母乳이고 수시수유이다. 수유시간은 특별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아기가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이고는 있으나 그 태도면에 있어서는 아기의 발육을 위하기 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에 불과하다.

4. 離乳는 동생을 보게 되면 시작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유의 담당자는 주로 어머니이다. 또한 이유방법은 젓꼭지에 붉은 물이나 매운 고추 등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 지방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그 중 빈젓빨기 방법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여 기피하여 왔다.

5. 배변훈련의 시기는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개가 幼兒가 말을 시작하면서 의사표현과 함께 훈련시기에 들어갔다. 또한 배변훈련 담당자는 어머니이거나 손 위 형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6. 본 도에서는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남아선호 사상이 높았다. 그 이유로는 제사, 성묘, 代를 잇기 위한 것 등이었고, 자녀 가치면에 있어서의 노후 봉양은 제주 여성의 근면성과 강한 독립심때문에 거의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여성)의 직업에 대해서도 경제력을 이유로 出家하기 전이나 후에도 계속 직업갖기를 원하고 있었다.



# I. 緒 論

## A. 研究의 目的

育兒方式은 어느 사회에서나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유형을 지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 어린이들의 여러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文化에 따라 독특하고 상이한 육아방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육아방식에 따라 그 사회 성원간에는 공통된 인성 특징을 갖게 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韓國社會에서도 우리에게만 있을 수 있는 전통적인 육아방식이 있을 것이며, 또한 더 좁게는 지역적으로도 독특한 育兒俗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現代는 文化가 발달됨에 따라 육아에 대한 지식, 개념, 육아행동까지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전통 육아법이 현대 육아법에 의해 점차로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점차로 소멸되어가고 있는 제주도의 전통 육아법을 정리·보존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B. 研究의 問題

本 研究는 科學發達의 혜택을 받기 이전, 제주도 婦女子의 전통적인 育兒俗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이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I : 제주도 부녀자의 해산전후 습속은 어떻게 행하여졌나?

연구문제 II : 제주도 부녀자의 育兒俗 (수유, 이유, 배변훈련, 탄생일 풍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연구문제 Ⅲ : 제주도 부녀자의 자녀관은 어떠한가? 등이다. 그리고 본 조사연구에서 규정하는 育兒俗의 범주에는 해산전후 습속을 포함시켰으며 자녀관은 직접적인 육아행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육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함께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 C. 研究의 制限點

本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자가 단독으로 現地에서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충분한 數의 표집대상을 구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대상자 선정면에 있어서 後述한 다섯가지 조건을 포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주도 전역이 아닌 中山間部落으로 한정시켰다는 점이다.

## II. 理論的 背景

### A. 文化와 育兒方式의 差異

육아방식은 어느 사회에서나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유형을 지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사회 어린이들의 여러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 사회의 육아방식은 그 사회의 文化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 안진<sup>1</sup>에 의하면 “육아방식은 家族單位에 따라 다르고, 가족의 社會文化的 계층의식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들 가족단위나 형태, 계층구조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는 육아방식은 곧 한 사회의 風俗이며, 文化이기 때문에 社會文化的 要因은 風俗, 慣習으로 표현되어 구체적으로는 육아방식으로 표현되고, 나아가선 그 사회의 성격, 그 부족의 부족성, 민족성을 결정한다”라고 했다. Whitting, J.W.M. and Child, I.L.<sup>2</sup>도 地上의 모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해결하여야 할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방법은 각 사회마다 제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Benedict<sup>3</sup>와 Kardiner<sup>4</sup>도 “인간은 本能이 아니라 관습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했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문화에 따라 어떤 형을 이루며 자녀양육의 문화적인 형은 사회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다.

---

<sup>1</sup> 유 안진 (1982), 「육아론」, (서울 : 문음사), pp.24-25.

<sup>2</sup> John. W.M. Whitting and Irvin L. Child (1953), Child Training and Personalit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75.

<sup>3</sup> R. Benedict (1981), Patterns of Culture,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Literature Inc.), p.115.

<sup>4</sup> A. Kardiner (1950), The Psychological Frontiers of Societ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p.201.

이 정덕<sup>5</sup>은 “文化的 일원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社會化 또는 文化化 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한 사회나 문화에서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고유한 관습, 행동양식, 지식체계, 가치관, 신앙 등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의 社會化 또는 文化化를 촉진하는 것은 그 社會의 독특한 육아방식과 어른들의 태도이다”라고 했다. 이와같이 많은 학자들이 문화에 따라 독특하고 상이한 육아방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육아방식에 따라 그 사회 성원 간에는 공통된 인성특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육아법과 인성을 관련시킨 연구로는 Erikson의 Indian 두 부족을 연구한 것이 있다. Erikson<sup>6</sup>은 미국 남부 Dakota 주에 살고 있는 Indian 두 부족이 서로 다른 육아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두 부족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은 다른 육아법으로 양육한 것에 기인한다고 결론지었다. 넓은 평원에 살고 있는 Sioux 족 인디언은 관대한 것을 명예로 알고 자기가 가진 귀중한 물건도 낮은 사람에게 선뜻 내어 주는 습성이 있었다. 이 Sioux 족의 육아방식은 離乳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까지 母乳을 먹였고, 아기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어머니의 수유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한 가지 규칙 사항이 있는데 이는 젖꼭지는 깨물어서는 안된다는 엄금이 있다. 만일 깨문다면 때리고 포대기에 꿰뚫어 묶어 요람속에 붙잡아 메어 놓는다. 이와 반면에 산악지대 삼림이 우거진 강변이나 해변에 사는 Yurok 족은 임신을 하면 음식을 적게 먹고 허리를 앞으로 굽혀 심한 노동을 한다. 또한 胎兒를 잡들지 못하게 배를 주르르며 갓 낳아서 20 일이 되면 속히 기어 다닐 수 있게 아기 발을 주

<sup>5</sup> 이 정덕, 박 영진 (1984), “한국과 일본의 육아방식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 권 1 호, p.5.

<sup>6</sup> Erick, H. Erikson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pp. 111-185.

물러 준다. 젖은 10 여일간 먹이지 않고 밤잠을 먹이며 離乳를 위해 수삼일 씩 어머니가 아기 곁을 떠나 산다고 한다. 이러한 육아방식으로 양육된 Yu rok 족은 아주 인색하고 청결을 강조하며, 강한 생활력을 보이고 말다툼이 많으며, 의심이 많고 금전 모으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Erikson 이외에도 육아방식을 비교 연구한 것으로는 Honigman 과 Lewis 의 조사연구가 있다. Honigman<sup>7</sup> 은 Alorese 족과 Arapesh 족의 육아방식을 비교해 보았더니 Alorese 족의 육아방식은 어머니가 농사를 하기 때문에 아기는 주로 할머니나 형제에 의해 양육되며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離乳食(밥물, 예비된 음식)을 먹이고, 간혹 이웃의 부인이나 유모에게서 젖을 얻어 먹는다. 이러한 육아방식으로 성장한 Alorese 족의 인성은 자신을 과소 평가하고 자포자기를 잘하며 인내심이 약했다. 한편, Arapesh 족은 어머니의 젖을 언제나 빨게 허용하며 어린 자녀와 같이 시간을 보내준다. 이렇게 성장한 Arapesh 족은 관대하고 안정성이 있었으나 반면에 시련을 극복하는 강한 생활력은 없었다. Lewis<sup>8</sup> 는 멕시코의 Tepoztlan 村 육아방식을 조사한 결과 갓난 아기를 뽀뽀 하며 매어 자유스런 몸운동을 막고 어린이들이 울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될 수 있는대로 울리지 않으며 몸의 동작이나 말하는 것, 음식 먹는 것 등을 매우 등한시 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너무 보호하여 행동을 제한했고 어른에게 복종하도록 강조했다. 이러한 육아방식으로 성장한 Tepoztlan 부족성은 말없이 조용하고 복종적이며, 소극적이고 의존적이었다. 이와같이 지역적으로 독특하고 상이한 육아방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방식에 따라 그 사회 성원간에는 공통된 인성 특징을 갖게 되고, 나아가선 그 사회의 성격, 그 부족의 부족성, 민족성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sup>7</sup> John, J. Honigman (1954),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pp.237-238.

<sup>8</sup> 이 효재 (1984),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p.294.

## B. 授乳, 離乳, 排便訓練 및 子女觀

### 1. 授乳와 離乳

乳兒는 출생하여 부모로부터 수유를 공급 받고 적당한 시기에 이유를 하여 밥을 먹어야 하는 등의 변화가 成人들에게는 별로 관심거리가 아니나 乳兒에게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다. 수유, 이유방법 등의 육아방식이 아동의 성격형성과 관계있다고 보았던 것은 Freud의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Erikson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발달 심리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sup>9</sup> Freud는 인성발달의 첫 단계로써 젖에 의존하는 시기를 口腔期(Oral Stage)라 하여 수유기의 입술의 만족, 또는 불만족스런 경험이 가학성, 공격성은 물론 자신감, 낙천적 태도와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sup>10</sup>

Frank<sup>11</sup>도 부모의 수유와 이유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어린이의 성격형성에 깊은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유방법이 乳兒의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모유가 人工乳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보다 부모의 애정이 유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교육적 영향이 더 중요하다. Ribble<sup>12</sup>은 유아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營養學的 離乳보다는 心理學的 離乳를 들어 모유영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Montague<sup>13</sup>는 “아기의 피부를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곧 죽을 것이다.”라는 극언을 하여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피부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어머니의 애정에 따른 교육적 영향을 중요시하였다. 수유의 방법과 함께 이유의 시기와 기한도 많은 학자

<sup>9</sup> 유 안진(1980),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정민사), p.83.

<sup>10</sup> 윤 태림(1964), 「한국인의 성격」, (서울: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p.281.

<sup>11</sup> L.K. Frank (1939), “Cultural Coerecion and Individual Distortion”, Psychiatry, pp21-22.

<sup>12</sup> Margaret A. Ribble (1943), “Early Psychological Needs and Their Satisfaction” The Rights of Infan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105.

<sup>13</sup> M.F. Ashley Montague (1971), “The Human Significance of the Skin”, Touchi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71.

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長島貞夫<sup>14</sup>은 “적당한 시기에 준비성이 완성된 때에 이유를 실시하지 않으면 慾求不滿을 낳게하는 등 악영향을 주며, 또한 너무 늦게 또 서서히 행해지는 離乳는 自己確信과 樂天的인 경향, 그리고 依賴적인 性格을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Swell<sup>15</sup>과 Sears<sup>16</sup>가 조사한 연구결과 이유의 시기는 서서히 이유시킨 쪽이 욕구불만을 주지 않으면서 社會的 特性이 높았고, 이유의 시기는 돌 전에 시작해서 2세 전에 그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러한 수유, 이유의 연구결과 공통점을 찾아보면 아기 中心의 수유방식과 갑작스런 이유보다는 서서히 行해지는 이유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2. 排便訓練

생후 1년 이후 즉, 肛門期(Anal Stage)는 自律의 時期라 할 수 있다. 이 때부터는 아기에게는 배변훈련의 시기가 된다. 배변훈련에 있어서도 이유의 방법과 같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와 관용적인 경우가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

윤 태림<sup>17</sup>은 “배변훈련이 잘 된 幼兒는 자라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나 훈련이 너무 조급하거나 빠르면 심한 노여움, 불복종, 잔학성이 움트고 적의, 불안감으로 반항하는 인성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했고 Malcore<sup>18</sup>와 이 원영<sup>19</sup>도 “너무 이른 시기에 훈련을 받는 것은 정서발달에 나쁘며 너무 늦은 배변훈련도 어린이에게 퇴행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고

<sup>14</sup> 長島貞夫(1956), 「아동사회 심리학」, (동경: 牧書店)을 인용한 성은모(1982), “한국 어머니의 육아법에 관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p.6에서 재인용

<sup>15</sup> W.H.Swell(1952), “Infant Training and the Personality of the Chil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pp.150-159.

<sup>16</sup> Sears, Robert. R., and Maccoby, Eleavor E., and Levin H. (1957), Patterns of Child Rearing, (New York: Row, Peterson and Company), p.101.

<sup>17</sup> 윤 태림(1964), pp.290-291.

<sup>18</sup> L.Malcore and E.Margaret(1945), “Friers' research in problems of infancy and Childhood”, Psychoanal, Study of the Child, (New York: Row Peterson Co.), pp.405-414.

<sup>19</sup> 이 원영(1966), “아동의 사회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방법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p.40.

했다. Orlansky<sup>20</sup> 는 “훈련이 늦을수록 바람직하나”고 했으며 “한 살이 될 때까지는 완성시키지 않는 편이 좋다”고 했다.

### 3. 子 女 觀

부모가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생각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왜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일견 무의미하게 들릴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반응을 들어보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價値觀 부여는 그리 단순한 것 만은 아니다. 자녀에 대한 가치 지각의 연구에서 先行되어야 할 일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여하는 子女 價値와 文化的, 社會的 構造의 차이에 관련된 變因을 포함하는 개념 모형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개념모형 중의 하나로 Hoffman and Hoffman의 모형을 들 수 있다.<sup>21</sup>

Hoffman의 모형은 자녀관에 대한 5가지 측면, 즉, 子女價値, 자녀가치에 대한 代價價値, 자녀의 부담가, 자녀가치 형성 장애요인, 자녀가치 형성 촉진 요인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자녀가치로서는 9가지 가치 群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적 동일시·자아확장, 도덕감, 종교·집단사회를 위한 善行, 제 1차 집단의 결속한 친애, 자극과 신기함·재미, 성취감, 자아능력·창의성, 영향력·경쟁심·사회적 비교, 경제적 유효성이다. 위의 9가지 群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유효성이다. 이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유효한 존재라는 점이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노후 봉양은 부모의 중요한 기대이다. 이러한 Hoffman 모형은 Fawcett<sup>22</sup> 에 의해 3가지 범주로 축소시켜 분류하고

<sup>20</sup> H.Orlansky (1949), “Infancy Care and Personality”, Psycho Bull 46, (N.Y.:Columbia University press.), pp.1-48.

<sup>21</sup> Fawcett, T., Arnold, R.A., Bulatao, C., Buripakdis, B., J. Chung, J. T. Fawcett, T. Iritani, S. J. Lee and T. S. Wu (1975), The Value of Children, (Hawaii: EWPI), pp.1-14.

<sup>22</sup> 앞 글, pp.1-14.



있다. 첫째는 道具的價值이고, 둘째는 道德的價值, 세째는 代案的價值이다. 이 Fawcett의 연구에 의하면 선험적으로 假定한 세 차원이 다소 복잡한 요인구조를 가지지만 자녀가치에 대한 연구로서는 포괄적이고 경험적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Hoffman과 Fawcett 외에도 社會學的 측면에서 자녀가치를 분류한 Berelson<sup>23</sup> 모형이 있는데 그는 자녀가치를 生物學的, 文化的, 政治的, 經濟的, 家族的, 個人的 으로 분류했다. Berelson의 자녀가치 중에서도 가족적가치에서는 자녀 중에서도 특히 男兒는 가계계승과 제사같은 가족의식에 필요하다는 점이 특이할 만 하다. 위의 자녀가치들은 긍정적인 자녀관을 말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부정적 자녀관의 세부항목은 정서적부담, 경제적부담, 기회부담, 신체적부담, 가족적부담 등이 그것이다. 이 이외에도 家族 價值로서 성선후, 형제관계 등의 변인이 있으며 小家族 價值로서는 사회적부담, 부모의 건강 등의 변인이 있다.

### C. 韓國의 傳統的인 育兒法

育兒俗이란 産俗의 한 부분으로써 초기에 嬰兒를 위해서 하는 通過儀禮라 할 수 있다. 임 동권<sup>24</sup>은 「서울의 산속」에서 산속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는데 여기에서 육아속의 개념을 엿볼 수 있다. “산속이란 出産에 관계되는 民俗을 말하는 바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원하는 析子俗, 출산을 전후하여 행해지는 禁忌, 胎兒의 예지 및 安産을 기원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관한 습속과 초기에 영아를 위해서 하는 육아속을 포함하여 산속이라 부르

<sup>23</sup> 앞 글, pp1-14을 인용한 이 영애(1973), “부모의 대인관 및 자녀관이 자녀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p.11에서 재인용

<sup>24</sup> 임 동권(1984), 「한국민속학 논고」, (서울: 집문당), p.147.

고자 한다 ”고 하였다. 따라서 산속은 임신에서 부터 육아에 이르는 동안 행해지는 여러가지 事象에 대한 習俗을 말하며, 특히 육아속은 산속 중에서도 嬰兒를 위해 행해지는 습속이라 할 수 있다.

## 1. 解産前後의 習俗

### 가. 胎 夢

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꾸는 것이나 胎夢이라 함은 임신을 전후해서 꾸는 꿈이며 남녀의 성별과 미래에 대한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하여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sup>25</sup>

한국 전통사회의 思考는 임신이란 남녀의 交合에 의해 생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지 않고 아기를 점지하는 것은 하늘이 관여하는 神의 소관으로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태아를 인격체로 소중히 다루고, 그래서 임신하면 본인이나 가족들이 아기의 점지를 계시받는 태몽을 꾸다고 생각했다.<sup>26</sup>

### 나. 解 産 俗

해산속으로는 산모에 대한 것과 아기에 대한 것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 (1) 산모에 대한 해산속

산모를 위한 해산속으로는 그 남편이나 혹은 시아버지가 미역을 준비하며 미역은 달을 넘기지 않고 産月에 구입하는 것이 보통이다.<sup>27</sup> 또한, 아기 아버지 될 사람은 淨한 벋짚을 골라 禁줄 또는 禁삭줄을 왼쪽으로 끈다. 왼새

<sup>25</sup> 안 은희 (1972), “산속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p.14.

<sup>26</sup> 유 안진 (1984), p.123.

<sup>27</sup> 문 승규 (1973), 「한국 농촌에 있어서의 육아 관행」, 한국연구총서 I, (서울 :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p.116.

끼금줄은 반드시 양끝을 자르지 않고 아들을 낳으면 고추와 숯, 딸을 낳으면 청솔가지와 숯을 번갈아 가며 꼬아서 三七日동안 대문이나 부엌문에 걸어두는데 이를 禁줄이라 한다. 이것은 外人이나 商人의 출입을 삼가도록 요구하는 의미로 잡귀나 병균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해산이 끝나면 탯줄을 자르게 되는데 민간에서는 여아는 식칼, 남아는 낫을 꿇는 물에 소독하여 자른다고 한다.<sup>28</sup> 해산후의 태반 처리법은 유 안진<sup>29</sup>에 의하면 “백자 항아리에 담아 月空方便으로 놓았다가 석달 후에 택일하여 月空方に 묻는다”라고 하고 있다

## (2) 아기를 위한 비념행사

아기를 위한 비념행사로는 三七日, 百日, 돌 등의 행사가 있는데 집안 가풍에 따라서는 아기가 있는 방이나 그 옆방에 삼신상을 차려놓고 아기의 무병 장수를 두 손바닥으로 빌며 기원하기도 했다.<sup>30</sup> “大疫(천연두), 小疫(홍역)을 다 치러야 내 자식이다.”, “자식은 잘 길러야 반타작이다”라는 속언과 같이 전통사회의 산모와 영아의 사망률이 가히 짐작될 수 있으며, 이렇게 세이레를 무사히 지난 乳兒는 첫번째 사망의 고비를 무사히 넘긴 것이며, 百日을 지난 乳兒는 두번째 사망의 고비를 무사히 넘긴 것이며, 첫 돌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축하의 잔치가 아기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sup>31</sup>

<sup>28</sup> 유 안진(1984), pp.129-130.

<sup>29</sup> 앞 글, p.130

<sup>30</sup> 유 안진(1980), p.69.

<sup>31</sup> 앞 글, p.80.

## 2. 授乳와 離乳

전통사회에서의 수유방법은 원할 때는 언제나 모친의 가슴을 향유하며 동생이 생길 때까지 젖을 먹을 수 있었다. 「구미인의 한국여성관」<sup>32</sup>에서는 한국의 양육법을 “처의 제 1소임은 자녀를 양육한다기 보다는 哺育하는 것이다. 다른 젖먹이가 없을 때는 7~8세까지도 젖을 먹였다”라고 소개할 만큼 한국의 어린이는 어머니의 젖만을 먹으며 자유롭게 키워졌다. 아기의 수유방법은 이와같이 관대하고 아기 중심적 수유방식이었고 어머니의 수유 태도면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였다. 유 안진<sup>33</sup>의 전통사회의 육아법 조사중 수유에 관한 내용으로는,

가. 젖먹인 후, 밥먹인 후에는 너무 웃게 아니하고

나. 원편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젖먹이며

다. 젖은 반드시 잘 주물러서 乳道를 통하게 한 다음 먹이며

라. 젖을 먹이면서 바늘을 앞가슴에 꽂지 말고

마. 젖으로 코를 눌러 젖먹이지 말며

바. 인삼과 엿기름도 먹지 말고

사. 젖을 먹이면서 쓰다듬어 준다 등이다.

산모가 병이 생기거나 젖이 부족하였을 때는 인공유는 상상도 못하였으므로 乳母를 구하였다. 유모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단지 젖의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젖먹이는 태도와 유모의 인격이 아기에게 전달된다 하여 유모 선택법이 매우 까다로왔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 유모의 기질과 성품이었다.<sup>34</sup> 이렇게 젖먹일 때의 환경이나 젖먹이는 사람의

<sup>32</sup> 홍 이섭 (1972), “구미인의 한국 여성관”, 「아세아 여성연구」제 1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 pp.18-29.

<sup>33</sup> 유 안진 (1980), p.77.

<sup>34</sup> 이 정덕, 박 영진 (1984), p.146.

영향을 강조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유모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젖동냥으로 키우는 사례도 있었는데 젖동냥은 四柱에 命이 짧다는 유아를 위해 百사람의 젖을 얻어 먹이거나 百집의 쌀을 얻어서 밥이나 떡(백무리 떡)을 해서 먹이는 풍속도 있었다.<sup>35</sup>

3~5세로 접어들면서 幼兒는 대체로 동생을 보게 되며, 이 때부터 본격적인 離乳가 시작된다. 유 안진<sup>36</sup>에 의하면 전통사회의 유아는 祖母의 빈젖빨기로 별 탈없이 자연스럽게 이유에 적응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두에 쓴약을 바르거나 幼兒를 놀리거나 조롱하여 수치심을 갖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sup>37</sup> 이유식으로는 특별한 것은 없었고 상류 가정에서는 잣죽, 깨죽, 미숫가루, 백무리떡, 과일간식(곶감, 대추, 홍시감) 등이었다. 그러나 서민 가정에서는 어른들의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었을 정도였다.<sup>38</sup>

### 3. 排 便 訓 練

전통사회에서의 배변훈련은 특정한 시기가 없었고 “때가 되면 가린다” 혹은 “아이 오줌, 똥은 仙樂이다”라는 속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느긋한 태도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옥구조가 바닥이 온돌이라는 점과 변소가 멀리 떨어져 있고, 더럽고, 위험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혼자 보내는 것이 탐탁치 않았으며 또한 방안에 변기가 있어서 배변훈련을 일찍 시작할 이유가 없었다.<sup>39</sup>

<sup>35</sup> 유 안진(1983), “한국 전통사회의 특성과 초기 사회화”,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83-1, p.84.

<sup>36</sup> 유 안진(1980), p.92.

<sup>37</sup> 유 안진(1982), p.146.

<sup>38</sup> 앞 글, p.148.

<sup>39</sup> 이 정덕, 박 영진(1984), p.148.

배변훈련의 담당자도 이유때와 마찬가지로 조모의 소관이었다. 배변훈련 방법으로는 단지팔기 놀이 \*로써 유아는 불결하여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대소변을 가리는 심리적 준비를 했다. <sup>40</sup>

#### 4. 子 女 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부계사회로서 조상숙배와 함께 집의 계승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sup>41</sup> 이와같은 역할은 아들이 수행해 주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적인 자녀관에서는 자녀중에서도 특히 아들을 중요시했다. 「內訓」<sup>42</sup>에 의하면 “사람이 혼례를 중히 여기는 이유는 조상의 혈통을 이으며 제사를 위한 것이다. 바로 가계의 계승을 위하여 남아를 낳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라고 했으며 따라서 여아는 가통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남아보다 하위로 취급되었다. 가계를 잇게 된 아들은 사후의 조상의 성묘, 제사에 이르기까지 상주, 제주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외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촌에서의 노동력 문제, 생활보장 등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sup>43</sup>

따라서 여성은 자식 특히 아들을 낳아야만 자신의 위치를 비로소 확보할

<sup>40</sup> 유 안진(1982), p.149.

<sup>41</sup> 이 정덕, 박 영진(1984), p.144.

<sup>42</sup> 昭惠王后(1977), 「內訓」, (서울:大提閣), p. 68.

<sup>43</sup> 박 인덕(1980), “한국 가정생활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p.20.

#### \* 단지팔기 놀이

단지사소 단지요  
우리 단지 싸게 사요  
그 단지 얼마요  
닷냥만 주시요  
에그머니 똥내요  
똥내나는 단지 안사요

단지 사소 똥단지 사소  
우리 똥단지 사소  
오줌독도 사고 똥독도 사소  
에그 저리 비켜  
지린내 나는 단지 안사요

수 있었고 조상과 집안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다. 이 인호<sup>44</sup>는 “한국여성은 아버지, 남편, 아들을 통해서 대체적인 삶을 살아야했다. 그러나 이 세 남성 가운데서 자기의 지배하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기 아들 뿐이었다. 따라서 한국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은 바로 인간 본연의 생에 대한 의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아들은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D. 濟州島 文化 Pattern 의 特色

제주도는 육지와 위치상 150 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절해고도인 관계로 고래로 얼마간 제주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특유의 제주 문화를 형성하는 자연, 인문 환경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자연 환경

###### 가. 위치와 면적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섬으로 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해 있고 총면적 1,819 km<sup>2</sup>로 전국의 1.8 %가 된다.<sup>45</sup> 높이가 1,950 m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의 길이가 약 80 km, 남북의 길이가 약 40 km를 이루는 타원형의 섬으로 주위 둘레가 약 254 km이다. 제주도에서 북쪽으로 목포까지의 거리는 88해리, 동북쪽인 부산까지와 일본의 대마도까지의 거리는 170 해리이다. 위도상으로 볼 때 일본의 九州지방과는 거의 같은 위치이고 서쪽의 중국 상해보다는 약

<sup>44</sup> 이 인호(1977), “성 역할에 관한 편견과 그 수정을 위한 교육의 역할”, 「한국인의 남녀 역할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을 인용한 이 정덕, 박 영진(1984), “한국과 일본의 육아방식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 권 1 호, p. 144 에서 재인용

<sup>45</sup> 고 부자(1971),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p.8.

간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대륙, 일본의 섬과 왕래하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찌기 선사시대부터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특히 육지로 부터는 거의 모든 문화가 제주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간혹 중국과의 교역도 이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6</sup>

#### 나. 지형, 지세

제주도는 남북보다 동서의 길이가 긴 타원형의 섬으로 섬 전체가 아스피데식 화산으로 알려져 있다. 섬의 중앙부에는 1,950 m의 한라산이 우뚝 솟아 섬의 중핵을 이루고 극히 완만한 경사로 四圓에 내리면서 들판을 이루고 바다에 다다른다. 경사는 南麓이 북쪽에 비해 비교적 급하고 평야는 서남부 해안쪽이 비교적 높다. 한라산의 정상에는 직경 500 m내외에 분화구인 백록담이 있고 이로부터 1,750 m에 이르는 산정부분은 산의 주위의 골짜기도 급각도로 떨어져 군데군데 조면암의 흉벽이 보인다. 한라산 麓에서 부터 해안선에 이르기까지 전역에는 각각 분화구를 가진 側火山들이 360여개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sup>47</sup>

#### 다. 기 후

본 도의 기후는 해양성기후로써 바람이 많으며 일기는 다변성이나 년중 기온이 온화하여 본토 各地와 큰 차이없는 평균기온 14℃내외이다. 현재까지 겨울은 영하 6℃이하로 내려간 기록이 없으며 년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2℃~영상 2℃로 되어 있다. 겨울의 기온을 비교하여 보면 서울보다 8℃~9℃, 남해안지방보다 4℃~5℃가 높다. 본 도의 강우량은 년 총 1,440 mm 가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다우지대에 속한다.<sup>48</sup>

<sup>46</sup>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83), 「제주 연구의 현황과 전망」, (제주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13.

<sup>47</sup>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7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제 5 집, 서울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p.13.

<sup>48</sup> 양 익철(1977), “지역사회개발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에 관한 연구-제주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p.29.



## 2. 인 문 환 경

제주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가는 자세히 알 도리가 없으나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이나 유적을 통하여 신석기시대 부터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것은 훨씬 후 인듯 하며 三國魏誌 東夷傳韓條라는 史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고 한다. 즉, “마한 서해중 대도에는 사람이 사는데 인종이 조금 왜소하고 언어는 마한과 같지 않고 선비족과 같이 모두 머리를 깎고 있으나 의복만은 가죽옷을 입었는데, 上衣는 입고, 下衣는 없어 거의 나체와 다름이 없으며, 소와 돼지 등의 가축 기르기를 좋아했고 배를 타고 中韓에 왕래하여 무역하였다”<sup>49</sup>는 것이다. 원래 제주가 九韓의 하나라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제주의 문화권은 북방계 한민족의 범주안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0</sup> 역사의 기원은 약 2,000 년 전인 기원전 65 년경 母興穴에서 湧出한 高, 夫, 良, 三乙那를 탐라국의 시조로 하는 三姓 신화에서 시작한다. 高氏世錄<sup>51</sup>에 보면 “태초에 瀛州(濟의 古名)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고 홀연히 三神人이 한라산 북쪽 기슭에서 솟아 나왔는데 長은 高乙那, 次는 良乙那, 三은 夫乙那였다. 이들 三神人은 어느날 동해상에 떠온 나무상자 속에 타고 있던 三神女와 혼인하여 나라를 세우니 탐라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三乙那의 후손중 高厚 三兄弟가 신라에 入朝하여 제주는 탐라라는 국호를 가진 독립국으로서 교역하였으나 고려조 이후는 제주라는 이름으로 고려에 예속된 하나의 懸이 되어 버렸다.

삼별초의 난을 겪으면서 탐라 문화에 끼친 영향은 큰 것이었다. 고려 중엽에 제주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몽고풍의 북방계 대륙문화가 유입되어

<sup>49</sup> 제주 고씨 중앙종문회(1973), 「고씨세록」, (서울:광명인쇄공사), p.75.

<sup>50</sup> 현 해경(1977), “제주도 복식에 관한 연구”, 수도여자사범대학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미간행), p.6.

<sup>51</sup> 제주 고씨중앙종문회(1973), 「고씨세록」, (서울:광명인쇄공사), p.77.

색다른 외래 문화 유형이 형성되기도 하였다.<sup>52</sup> 공민왕 16년에 다시 元牧을討伐한 뒤 다시 고려에 속했다가 李王朝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3代太宗때 비로소 중앙집권하에 一個의 행정 단위가 된 것이다. 그러나 仁祖는 反政에 성공하여 光海君의 왕족을 귀양 보내고 순조末까지 약 2세기 동안 島民의 出陸을 금지하고 유배지로서 통치하였다.<sup>53</sup>

따라서 제주의 문화 pattern은 고립적인 면보다는 북방계인 대륙문화가 본 도 토착민의 남방계 문화와 융화를 이룬 특유한 문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sup>52</sup> 현 해경 (1977), p.7.

<sup>53</sup> 고 부자 (1971), p.10.

### Ⅲ. 研究의 方法

#### A. 研究 對象

연구 대상자는 제주도 내의 성읍리, 남읍리, 보성리 3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33 명의 高령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자에 한해 실시하였다. 첫째 高연령자, 둘째 출산 경험이 많은 자, 셋째 본 도 출신으로 外界의 문물에 접촉이 적었던 자, 네째는 신종교(예수교, 천주교)를 믿지 않은 자, 다섯째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건으로 한정시킨 이유는, 첫째 현대는 의학의 발달과 메스컴의 발달로 인해 생활의 개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의 개혁은 육아속에 대한 지식마저 변화해 가고 있으며 지금의 젊은 연령층에서 보다는 대체적으로 해방전에 육아를 했었던 高연령층에서 보다 더 전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出産 경험이 많은 자는 많은 수의 아이를 낳고 키울때 그 상대되는 여건들이 다르므로 경험한 바가 많으면 그 만큼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본 연구의 목적이 제주도의 육아속 조사이므로 순수한 도내의 風俗이어야 할 것이며, 책을 통해서나 타 지방에서의 풍물을 받아 들이는 경우 혼동되기 쉬우므로 본 도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네째는 근래에 와서 한 지방의 민간신앙, 풍속 및 관습은 전근대적이며 비합리적이라는 관념과 함께 미신으로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민간신앙을 믿는 자 즉, 유교, 불교, 토속신앙을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출산과 자녀양육은 어머니 역할이 아버지 역할보다 더 직접적이고 중요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 명단은 부록으로 첨부하였고 조사대상자 연령 및 거주지에 따른 표본수는 表 1, 表 2 와 같다.

表 1 . 조사대상자 연령에 따른 표본수

연령	여자 (N)
50 ~ 59 세	7
60 ~ 69 세	9
70 ~ 79 세	12
80 ~ 89 세	4
90 세 이상	1
계	33

表 2 . 거주지에 따른 표본수

거주지	여자 (N)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	11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11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11
계	33

조사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성격을 살펴보면 表 3 과 같이 조사대상지역이 중산간 부락이므로 거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족형태는 대가족이 67 % , 핵가족이 33 % 이다. 여기서의 대가족형태는 제주도 특유의 가족형태로 같은 집에 동거는 하지만 모든 취사를 달리하고 경제적인 것도 각각 독립하고 있어, 엄격히 대가족제도라고도 볼 수 없다.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無學이 76 % , 야학이 12 % , 국졸이 12 % 이다. 자녀출산수는 1 ~ 3 명이 21 % , 4 ~ 6 명이 21 % , 7 ~ 9 명이 43 % , 10 ~ 12 명이 15 % 이다. 이중 자녀를 잃었던 경험에 있는 자는 61 % 에 해당된다.

조사대상자의 가정경제 상태는 주로 밭농사이며 1,000 평 이하의 농사를 했던 대상자는 34 % , 1,000 ~ 2,000 평이 30 % , 2,000 ~ 3,000 평이 21 % , 3,000 평이상의 농사를 했던 대상자는 15 % 이다.

表 3. 조사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성격

구 분		인 원 (N)	비 율 (%)
계		33	100
직 업 별	농 업	32	97
	상 업	1	3
가 족 형 태 별	대 가 족	22	67
	소 가 족	11	33
교 육 수 준 별	국 졸	4	12
	야 학	4	12
	무 학	25	76
자녀출산수 별	1 ~ 3 명	7	21
	4 ~ 6 명	7	21
	7 ~ 9 명	14	43
	10 ~ 12 명	5	15
가정경제상태별	1,000 이하	11	34
	1,000~2,000 평	10	30
	2,000~3,000 평	7	21
	3,000 평 이상	5	15

## B. 道具 및 節次

본 연구자는 제주도의 육아속을 알아보기 위해 高 富子(1976)의 “제주도의 산전속”<sup>54</sup> 高 富子(1976)의 “제주도의 산후속”<sup>55</sup> 高 富子(1977)의 “제주도의 육아속”<sup>56</sup> 과 文 承圭(1973)의 “한국 농촌에 있어서의 육아 관행”<sup>57</sup> 成 恩模(1982)의 “한국 어머니의 육아법에 관한 조

<sup>54</sup> 고 부자(1976), “제주도의 산전속”, 「국제대학 논문집」 14 집, pp18-37.

<sup>55</sup> \_\_\_\_\_(1976), “제주도의 산후속”, 「한국민속학」 9 집, pp93-108.

<sup>56</sup> \_\_\_\_\_(1977), “제주도의 육아속”, 「국제대학 논문집」 4,5 합집, pp377-410.

<sup>57</sup> 문 승규(1973), pp112-140.

사 연구 ”<sup>58</sup>, 朴 仁德 (1980) 의 “ 한국 가정생활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sup>59</sup> 등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연구 의도에 맞게 내용을 추출하고 새로운 문항을 첨가하여 1986 년 2 월 1 일부터 1 개월간 현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은 육아에 관한 전반적인 習俗을 알아보기 위하여 해산전 후 습속에 관한 문항 18 개, 탄생일 풍속에 관한 문항 6 개, 수유에 관한 문항 5 개, 이유에 관한 문항 4 개, 배변훈련에 관한 문항 5 개, 자녀관에 관한 문항 9 개로 총 47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제주도의 중산간 부락으로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로 한정하였다. 이상의 3 개 지역은 옛날부터 행정의 중심지이며 역사가 깊은 부락들이다. 특히 성읍리는 제주도의 민속촌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로서 전통성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sup>58</sup> 성 은모 (1982), “ 한국 어머니의 육아법에 관한 조사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미간행 ), pp.59-61.

<sup>59</sup> 박 인덕 (1980), pp.231-235.

## IV. 研究結果 및 考察

### A. 解産 前後의 習俗

「産」은 만물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성에게만 부여된 임무와 권리인 동시에 창작 완성자이며 최고의 특권을 가진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창작과 생산만으로는 인간이 인간화될 수 없고 사회화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sup>60</sup>

현재는 어떻게 하면 잘 키우고 잘 살게 할 것인가 하는 量보다 質적으로 더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質을 생산하기 이전, 多量 生産的인 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다. 이러한 다량 생산성이 좋은 여성은 山川이 좋은 덕으로 걱정없으니 그것도 福중에 큰 福이라고 했다. “병신중에서도 아기 못낳는 병신은 사람 축에도 못끼었고 저승가서도 벌을 받는다”라고 했으니 출산력이 없는 여인의 고뇌는 컸으며, 아무리 아기를 많이 낳기는 하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갖가지 정성이 필요하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출생의례가 따랐다. 출생의례에 따른 제주도의 해산습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해산전

##### 가. 태몽

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꾸는 것이나 태몽이라 함은 임신을 전후해

---

<sup>60</sup> 고 부자(1976), p.18.

서 보통 때와는 다른 꿈을 꾸는 것이며 이러한 태몽으로 남녀의 성별과 미래에 대한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어 임산부, 가족 및 친지에까지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몽은 임산부가 꾸는 경우도 있으며, 간혹 남편이나 가족이 꾸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태몽에 관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은 뱀이었다. 뱀이 갑자기 달려 들거나, 물거나, 몸에 휘감아지거나 하면 거의 모두가 임신이 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뱀의 등장은 어떤 특정한 남녀 구별보다는 임신 징조에 그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태몽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는 表 4 와 같다.

表 4. 胎夢信賴度

類 別	민 음	반 신 반 의	안 민 음	합 계
인 원 수 (N)	25	6	2	33
비 율 (%)	76	18	6	100

表 4 와 같이 출산 경향이 있는 부녀자중 76 %가 태몽을 믿고 있으며, 반신반의 즉,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는 것은 첫아이 때는 태몽이 맞았고 둘째아이 때는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18 %로써 믿는다는 편과 함께 신뢰를 하는 편이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태몽을 믿지 않는 경우는 불과 6 %밖에 안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주도 부녀자의 태몽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 부자 (1976)<sup>61</sup> 의 조사에서 나타난 61 %의 태몽신뢰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는 고 부자의 조사에서는 중년층과 시, 읍 단위도 포함시켰으나 본 조사에서는 高연령층과 리 단위의 부락만을 조사한 까닭으로 高연령층의 대상자가 더욱 전통성이 있어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다음은 태몽에 의한 출생

<sup>61</sup> 고 부자 (1976), p.24.



아의 성별을 조사하여 본 결과 태몽의 대상물은 表 5 와 같다.

表 5 . 출생아의 성별에 따른 태몽의 대상물

종 류	남 아	비 고	여 아	비 고
동 물 류	큰 뱀(15), 장 쾩(3), 개(2) 용(2), 장닭(2), 병아리(2), 돼 지(1), 황소(1), 호랑이(1),	수치는 빈 도수를 말 하며 복수 응답임	작은 뱀(7), 작은 병아리 (4), 개(2), 암 닭(2), 암 쾩(1)	수치는 빈 도수를 말 하며 복수 응답임
식 물 류	고추(11), 붉은고추(1), 배(1)		참외(1), 수박(1), 사과(1) 복숭아(1), 유자(1), 푸른 고추(1)	
어류 및 해 조 류	큰 물고기(1)		전복(4), 고동(2)	
천 체 류	해(1), 달(1)		없 음	
소지품 류	담배통(24), 붓(10), 통물묵 (6), 남자가 사용하는 물 건(5), 책(4), 연필(2), 목공연장(2), 금반지(2) 장대(2), 톱(1), 주사기 (1), 담배(1), 물뿌리(1) 남자가 사용하는 수저(1)	통물묵 : 담배통 물뿌리 : 담배대	허벅(29), 그릇(4), 여자 소지품(4), 접시(2), 아기 구덕(2), 빨래방망이(1) 장테(1), 비녀(1), 수저 (1), 깨진그릇(1), 향아리 (1), 색동저고리(1)	허벅 : 물 길으는 향아리 아기구덕 : 아기요람 장테 : 여자 가 사용하 는 대바구니
행 동	발 가는 일(1), 나무 지는 일(1)		빨래일(5), 허벅메고 물 길으는 일(4), 발가는 일 (3), 베짜는 일(1), 이부 자리 꿰매는 일(1), 찬장 사는 일(1), 고사리 꺾는 일(1)	
음 식 류	고기가 먹고 싶다(2), 술이 먹고 싶다(1), 감이 먹고 싶다(1)		채소가 먹고 싶다(7), 과일 이 먹고 싶다(1), 신음식이 먹고 싶다(1)	
기 타	달걀(3), 낫그릇(3), 술 병(1), 큰 관개(1)	관개 : 벼슬 을 한 사람	없 음	
임산부의 外 形	붉은 기미가 낀다(2) 배가 높다(2)		영덩이가 넘적하다(2) 검고 푸른기미가 낀다(2)	

동물류에서 보면 남아는 대체로 크고 억센 숫놈들이며, 반대로 여아는 작고 연약한 암놈들이다. 식물류에서도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고추는 남아를 뜻하며 과일류는 여아를 뜻하고 있다. 소지품류에 있어서 남아는 남성들의 소지품인 담배와 기타 그 부속류들이며, 여아인 경우는 제주도 특유의 여성 勞作에 관한 허벅과, 어류 및 해조류의 전복과 고동 등으로 이것은 본 도가 사면이 바다인 관계로 나타날 수 있는 특이한 태몽 대상물이라 여겨진다. 태몽의 길, 흉은 곧 운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조사된 태몽의 길, 흉은 表 6 과 같다.

表 6 . 태몽의 길과 흉

길	몽	흉	몽
허벅에 물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으면 그 아기는 부자가 된다.		바다물이 썰물인 것을 보면 아기가 죽든지 잘 아프다.	
병아리 꿈은 자손이 번창한다.		짐승(특히 뱀)을 죽여 보이면 그 아기는 낳아도 지탱이 안된다.	
바다물이 밀물인 것을 보면 그 아기는 부유하게 산다.		화재 나는 꿈은 아기의 얼굴과 몸에 붉은반점(화반)이 생긴다.	
돼지 꿈을 꾸면 그 아기는 식복이 좋다.		해가 떨어지는 것, 벼락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 아기는 낳아도 나쁜 병에 걸린다.	
꿈에 낚그릇을 주으면 그 아기는 명이 길다.		허벅이 깨어지는 꿈은 아기가 단명한다.	
실꿈은 아기가 장수한다.		호박 꿈은 아기가 단명한다.	
뱀이 들어오는 꿈은 아기가 순산한다.		아기 구덕을 버리는 꿈은 아기가 죽는다. 이는 아기를 지켜주는 삼신할머니를 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베짜는 꿈은 아기가 항상 쫓기면서 산다. 왜냐하면 베짜는 일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기는 순탄하게 살지를 못한다고 한다.	
		검은소가 집에 들어오면 그 아기는 사산한다.	

대개가 길몽과 흉몽은 그 事物이 갖는 특징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끌리는 類似 連想作用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고 할 수 있겠다. 대개가 깨진다거나, 죽여보이는 것, 나가는 것, 버리는 것 등은 흉몽이라 생각되고, 얻어오는 것, 가득찬 것, 들어오는 것은 길몽이라 생각된다. 흉몽인 경우 아기가 단명하든지, 죽든지, 사산하든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시대의 영아 사망률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이러한 흉몽을 꾸게 되면 예방법이 있는데 검은소가 집에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될 경우에는 물레일할 때 쓰는 잉애 1개와 채를 가지고 아홉 집에 가서 쌀을 동냥해다가 뉘(밥)를 해서 상을 차려 구양할머니\*한테 빌어 배송시킨다고 한다. 구양할머니 예방법으로는 밤에 아기를 데려 나갈 때는 아기 머리맡에 반드시 성냥을 놓으면 구양할머니나 잠귀들이 붙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도 제주도가 섬인 관계로 물허벅의 등장과 아기구덕의 등장이 타 지방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아기구덕이란 제주인의 요람으로써 생후 3~4일이 지나면 이 아기구덕에 잠을 재우기 시작하며, 보통 4세까지는 여기에서 키운다. 즉, 동생을 보게 되면서부터는 이 아기구덕도 동생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이 구덕은 대나무로 깎아 만든 장방형의 대바구니이며 높이가 50~60 cm, 폭이 30~40 cm, 길이가 1 m 정도이다. 구덕 가운데는 보릿짚을 깔고 아기를 눕히게 되어 있다. 이 아기구덕은 한쪽 발로 아기구덕을 흔들며 아기를 재우면서 일을 하거나, 주로 밭에 나갈 때도 아기를 눕힌 채 지고 가서 일을 하였으므로 이는 제주 여성들의 근면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허벅은 물허벅이라고도 하며 예로부터 음료수가 귀했던 제주에서 식수를 운반할 때 쓰였던 도구로써 물을 담았던 물동이를 말한다.

---

\* 삼신할머니의 상대되는 할머니이다. 즉, 삼신할머니는 아기를 보호해 주는 할머니인데 비해 구양할머니는 아기를 못살게 구는 할머니이다.

### 나. 임신중의 금기사항

임신중의 금기사항으로는 대개가 禁忌飲食면과 禁忌事象면으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제주도 부녀자의 임신중의 금기사항은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과거의 제주 여성은 대부분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生活苦 때문에 축복과 정성속에서 탄생하여야 할 아기에 대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으며, 음식도 풍족하지 않은 관계로 금기하면서까지 먹을 음식이 없었다고 한다. 그나마 古老들이 응답한 금기사항을 종합해 보면 表 7, 表 8 과 같다.

表 7. 금 기 음식

금 기 음식	인원(N)	비 고
닭고기를 먹으면 아기가 닭 피부같이 까칠까칠 해진다.	5	수치는 빈도수를 말하며 복수 응답임.
달걀을 먹으면 아기가 부스럼이 난다.	3	
돼지 새끼회를 먹으면 아기가 사산한다.	2	
말고기를 먹으면 12 달 임신한다.	1	
물고기의 눈알을 먹으면 아기의 눈이 병신된다.	1	
고동을 먹으면 아기가 멍청해진다.	1	
소라를 먹으면 아기 피부가 소라같이 돈는다.	1	
개고기를 먹으면 목소리가 나빠진다.	1	
닭발을 먹으면 발이 시리다.	1	
게를 먹으면 꼬집기를 잘한다.	1	
계	17	

금기음식면에서는 51 %만이 음식을 금기하여 먹었고 절반에 해당되는 49 %정도가 음식을 금기하여 먹지 않았다. 음식을 금기한 사람도 한사람에 대해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금기하지 않은 사람은 70~80 %

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금기음식면에서는 고 부자<sup>62</sup> 와 안 은희<sup>63</sup> 의 조사에서 나타난 금기음식수 보다 적은 것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제주 여성들의 生活苦를 족히 짐작할 수 있다.

表 8. 금 기 事 象

금 기 사 상	인원(N)	비 고
짐승을 해하거나 해하는 것을 보지말 것.	17	화담, 경기에 걸린다.
화재난 것을 보지 말것.	11	
도둑질 하지 말것.	7	
거짓말 하지 말것.	6	
남한테 욕하지 말것.	5	
말고삐를 넘지 말것.	3	12달만에 해산한다.
죽은 것, 장사 지내는 것을 보지 말것.	3	남아인 경우 성기가 커진다.
빨래 방망이를 깔아 앉지 말것.	3	
빛자루를 깔아 앉지 말것.	3	여아인 경우 성기가 커진다.
그릇을 깨지 말것.	2	순산하지 못한다.
임신 3개월 전에 빨래하지 말것.	2	
소를 멘데를 넘지 말것.	2	아기가 침을 자주 흘린다.
불화로를 넘지 말것.	2	화담에 걸린다.
거리를 지나다가 아기 봉분을 밟지 말것.	1	아기가 사산한다.
남 모르게 먹지 말것.	1	

금기에는 음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모 자신의 행동이나 가족들의 협력으로 가정에서 까지도 금기해야 하는 일이 많으나, 이는 대개가 임신부 보다는 태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금기하고 있다. 임신부가 금기하는 事象은 대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類似型態는 類似型態를 동반하는 皮想的

<sup>62</sup> 고 부자(1976), pp.26-27.

<sup>63</sup> 안 근희(1972), pp.24-25.

인 連想作用에 의한 類似性 때문에 금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음식이나 事象의 금기는 주술적인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타당한 일면도 있어 결국은 임신부가 만사에 조심하고 행동에 유의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태아의 성별예지법

부녀자가 잉태를 하게 되면 태아가 남아일까, 혹은 여아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이다. 더우기 자손이 귀한 집이나 딸만 낳은 집에서는 더욱 궁금해 하고, 남존여비 사상이 농후한 전통사회에서는 여아보다는 남아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에는 칠거지악 중에서도 으뜸이었기 때문에 태아가 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임신부나 친척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심사에 기인하여 성별예지법이 생겨났으리라 본다. 제주도의 성별예지법을 조사한 내용은 表 9, 表 10, 表 11 과 같다.

表 9. 임신부의 신체적 상황으로 예지하는 법

신 체 적 상 황	남	아	여	아	인원(N)	비 고
태 동	왼쪽에서 크게 움직인다.	오른쪽에서 약하게 움직인다.	13		수치는 빈도	
배	뽀쪽하다.	넙적하다.	7		수를 말하며	
젖 꼭 지	붙 다	회 다	2		복수 응답임	
월 경	월말이나 월초에 시작해서 월초에 끝난다.	월말에 시작해서 월말에 끝난다.	2			
이 슬	붙 다	회 다	2			
기 미	검 다	붉 다	2			
가 숨	윗가슴을 찬다.	윗가슴을 차지 않는다.	1			
엉덩이	뽀쪽하다.	넙적하다.	1			

表 10. 兄의 신체적 상황이나 행위로 예지하는 법

兄의 신체적 상황 및 행 위	남 아	여 아	인원(N)	비 고
조름박 (사타구니에 생긴줄)	왼쪽과 오른쪽에 생겼을 때 남아인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에 생겼을 때 여아인 경우는	28	수치는 빈도수를 말하며
신 체	兄이 여원다.	兄이 살찐다.	4	복수 응답임
모 습	兄이 남아 같으면 아들	兄이 여아 같으면 딸	3	
성기와 항문사이	금이 맞는다.	금이 어긋난다.	2	
엄 지 손 가 락	엄지손가락을 그대로 뺀다.	엄지손가락을 얹어서 뺀다.	2	

表 11. 기 타

기 타	남 아	여 아	인원(N)	비 고
임산부가 뒤돌아보는 행동	뒤에서 임산부를 부르면 왼쪽으로 돌아본다.	뒤에서 임산부를 부르면 오른쪽으로 돌아본다.	6	수치는 빈도수를 말하며
나 이	부모 나이가 홀수일때	부모 나이가 짝수일때	5	복수 응답임
해산달 초하룻날 새벽	남자가 들어오면 아들	여자가 들어오면 딸	1	

表 9에서 보면 임산부의 신체적 상황으로 남녀를 구별하는 것은 대개가 태동인 경우 남아는 크게 움직이고 여아는 남아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에 반대되는 현상으로서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동이 심하면 아들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아서도 남아는 원래가 활동적인 까닭에 태내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는 경험적인 것이라 하겠다. 表 10의 경우 兄이 남자 같으면 아들, 兄이 여자 같으면 딸이라고 한 것은 그 형태의 유사성에 의해서 내려진 성별예지법이라 할 수 있겠다. 조름박으로 아는 경우는 제주 지방에서만 있는 예지법으로 생각되어지며, 부모 나이로 아는 방법 등은 예로부터

태아의 성별에 관심이 많았던 관계로 심리적 요망에 의해서 占卜書나 吉凶秘訣書에서 태아의 예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인하여 나온 예지법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태아의 성별예지법은 고 부자(1976)<sup>64</sup>의 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한 면을 보였는데 이는 동일권 내에서의 조사이므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안 은희(1972)<sup>65</sup>의 조사에서는 表9의 경우는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임 동권(1984)<sup>66</sup>의 서울지방의 산속 조사에서는 임신부의 배가 평평하면 아들, 타인이 불러서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아들이라고 나타나고 있어 본 조사 내용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 라. 순 산 법

妊婦는 産日이 가까우면 順産되기를 바라며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난산을 피하고 순산하게 하는 여러가지 행위를 順産이라 한다.<sup>67</sup> “방에 들어가기 전에 벗어 놓은 신발을 다시 되돌아 본다”라는 말과 같이 生과 死의 갈림길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므로 여러가지 치성과 주술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주술적인 방법으로는 산모에게 무엇을 먹이는 법과 치성을 들이는 법이 있다. 조사된 내용은 表12, 表13과 같다.

表12. 음식에 의한 순산법

음 식 명	인 원 (N)	비 고
참 기 림	20	수치는 빈도수를 말하며 복수 응답임
계 란	20	
바다새우 5마리	2	
메 밀 죽	1	
오 이 씨	1	
피 마 자 기 림	1	

<sup>64</sup> 고 부자(1976), p.30.

<sup>65</sup> 안 은희(1972), pp.32-34.

<sup>66</sup> 임 동권(1984), p.160.

<sup>67</sup> 안 은희(1972), p.37.



表 13. 치성 의례에 의한 순산법

치 성 의 례	인 원(N)	비 고
깨문이나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은 전부 연다.	22	수치는 빈도
지붕위에 물을 끼얹은 다음 떨어지는 그 물을 받아 마신다.	19	수를 말하며
남편 바지를 허리에 덮어준다.	10	복수 응답임
3 가구의 집에 알리지 않는다. 3 가구 이상의 집에서 해산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난산한다.	9	
은비녀와 포도줄을 삶아서 그 물을 마신다.	3	
피마자 나무와 버드 나무를 房안에 세워둔다.	3	
열쇠통 끓인 물을 마신다.	3	
남편이 샘물을 물어다가 해산부에게 먹인다.	2	
이불깃을 뜯어다 해산부 배에 덮어준다	2	
지붕위에 말안장을 뒤집어 놓는다.	2	
상제 허리띠를 배에 졸라맨다.	1	
남편의 이름을 쓴 백지를 먹는다.	1	
물레를 두개로 갈라 놓는다.	1	

순산을 기원하는 民間醫疾의 방법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는 것 보다는 의타적인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 음식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계란, 참기름은 미끄러운 점을 이용해서 순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유사연상작용으로 보아지며 또한 산고를 시작하는 산모에게 닭이 달걀을 낳듯 쉽게 해산하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경북 안동지방의 순산법<sup>68)</sup>과 충북지방의 순산법<sup>69)</sup>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치성의례 방법에 있어서 남편의 옷을 덮어주는 방법 등은 남편의 옷이 옆에 있으므로서 남편이 옆에 있는 것과 같은 안도의 심리가 작용하여 안심하고 용기를 내어 진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一面이 있으며, 깨문

<sup>68)</sup> 유 안진 (1984), p.126.

<sup>69)</sup> 안 은희 (1972), p.38.

이나 문을 여는 것은 산모의 자궁문과의 유사 연관성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3가구가 알게되면 해산이 더딘다는 것은 산고를 조용히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훈계에서 비롯된 것 같다.

## 2. 해산후

### 가. 분만장소

오늘날 농촌에서도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흔히 병원에서 분만하거나 산파를 부르는 것이 보통이나 과거의 제주도 부녀자들은 거의가 自家의 房안에서 분만하였으며, 대단히 근면하였기 때문에 해산 예정일이 되어도 밭에 나가 일을 하였다. 따라서 밭에서 일하다가 진통이 심하면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밭모퉁에서 낳는 경우도 더러 있다. 房안에 보릿짚이나 벼짚을 깔고 그 위에서 힘을 쓰며 낳았는데 조사지역 중 남읍리와 보성리 지역은 대부분이 보리농사를 하는 관계로 보릿짚을 깔았고, 성읍리 지역은 약간씩은 벼농사를 하였기 때문에 벼짚을 깔고 해산하였다. 이러한 해산후의 보릿짚이나 벼짚은 해산후 3일뒤에 胎와 같이 처리하였다.

### 나. 조산 (해산 수발 담당자)

대부분의 제주도 부녀자는 조산원의 도움없이 본인의 힘으로, 혹은 가족들의 협조아래 분만하였다. 과거의 제주도에서는 특정한 산파가 없었으며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은 같은 마을 할머니 중에서 아기를 많이 낳은 경향이 있는 후덕한 어른들이다.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해도 정신적으로 옆에 있어 준다는 안도감으로 해산에 대비한 것 같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해산 수발 담당자는 表 14 와 같다.

表 14. 해 산 수 발 담 당 자

해 산 수 발 담 당 자	인 원 (N)
본 인	24
시 어 머 니	5
남 편	2
친 정 어 머 니	2
계	33

위의 결과는 제주도 부녀자가 고된 생활속에서도 출산하는 것은 으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출산 행위가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문 승규<sup>70</sup>의 조사에 의하면 노년층에서는 혼자서 해산한 경험이 36.7 %, 시집 식구가 해산 수발한 경험이 62.2 %로 제주도 부녀자는 이와 비교하여 보면 산욕하는 것은 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 다. 산모의 산욕기간

산모의 산욕기간은 제주 여성의 근면성과 생활난으로 인해 충분하지가 못했다.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산욕기간으로 인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도 자신의 팔자탓으로 돌리고 있었고, 오히려 충분한 산욕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생각으로 여겨져왔다. 어느 古老의 말에 의하면 “아기 낳아 두고 돌아앉아 풀베고, 아기 낳아서 3일만 문전 출입을 안하면 흉볼까 봐 전전긍긍했다”고 하였다. 조사된 산모의 산욕기간은 表 15와 같다.

<sup>70</sup> 문 승규 (1973), p.134.

表 15. 산 모 의 산 욕 기 간

산 욕 기 간	인 원 (N)
1 일	14
3 일	10
7 일	8
15 일	1
계	33

산욕기간이 15 일인 경우는 특수한 것으로 워낙 건강이 나빠서 보름씩이나 했다고 했으며, 산후 다음날 부터 일한 경우가 가장 높은 결과(14 명)를 보였다. 문 승규(1973)<sup>71</sup>의 조사에서 노년층인 경우 산모의 산욕기간이 2.5 일에 비하면 제주 여성의 산욕기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나타났다.

#### 라. 산후 음식

산모의 산후 음식으로는 거의가 메밀수제비를 먹었다. 즉, 제주도의 산모는 메밀가루를 물에 타서 그대로 마시든지, 혹은 끓는 물에 한번 익혀서 수제비를 만들어서 먹었다. 메밀가루를 먹어야 지혈이 되고 피가 아래로 흘러 내린다 하여 제주 여성들은 출산 직후 처음 먹게 되는 필수적인 식품으로 여겨져 왔으며, 메밀가루가 없으면 아기를 낳은 뒤에도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길 정도였다. 메밀수제비 이외에 가정형편에 따라서는 海魚국을 먹게 되는데 해어로는 제주도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옥돔과 북바리 종류이다. 특히 해어국은 유량을 풍부히 해준다고 하였고, 메밀수제비는 타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제주도 특유의 산후 음식으로 여겨진다.

<sup>71</sup> 앞 글(1973), p. 134.

## 마. 胎覆과 탯줄처리

태아는 모체내에서 영양분의 보급을 받고 있었으며 출산하게 되면 모체와 연결하고 있는 탯줄을 자르게 된다. 이러한 것을 “삼가른다” 혹은 “태가른다”라고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영아 사망의 원인이 三七日을 전후 배꼽으로 병균이 침입하여 앓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탯줄 처리를 중요시하여 왔고, 사실상 금줄의 사용도 아기에겐 배꼽이 아물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조사된 태가르는 법 및 태반 처리법은 다음과 같다.

### (1) 태가르는 법

한뼘 내지 두뼘쯤 남겨 피를 아기한테 흘리고 두겹의 실로 감아서 자른다. 이 때는 胎가 당겨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겨지게 하면 배꼽이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 너무 가깝게 남겨서 자르면 아기의 오줌이 잦아지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서 자르고, 태가르는 기구로는 대부분이 가위이다. 가끔 이빨로도 자르는데 이는 그 집안에 아기가 귀하다거나, 자식을 많이 잃었던 집에서 행해졌으며, 이렇게 하면 아기의 명이 길어진다고 했다. 탯줄이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도 3일전에 떨어지면 그 아기는 단명하고 7~10일이 되어서 떨어지면 장수한다고 했고,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난 아기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항상 걱정하며 산다는 俗信도 있었다. 태자르는 기구로는 거의가 남녀 구별없이 가위로 잘랐는데, 이는 안 은희<sup>72</sup>와 유 안진<sup>73</sup>의 조사에서 나타난 여아는 가위, 남아는 낫으로 남녀 구별하여 자른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sup>72</sup> 안 은희 (1972), p. 54.

<sup>73</sup> 유 안진 (1982), p. 128.

## (2) 태반처리법

산모는 아기를 낳고 後産으로 태반을 낳게 되는데 태반처리는 해산후 관습 가운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로써 큰 관심사였다. 태반처리법으로는 表 16 과 같이 행해지고 있다.

表 16 . 태 반 처 리 법

태 반 처 리 법	인 원 (N)
불 태운다.	28
땅속에 묻는다.	5
계	33

불태우는 방법이 28 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조사대상지역이 농산촌 부락이어서 가장 많이 행해졌으리라 생각된다. 땅속에 묻는 경우도 농산촌 부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이다. 이 두가지 방법 이외에도 바닷물에 띄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대개가 어촌부락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고 부자(1976)<sup>74</sup>의 조사에서는 불태우는 법이 41 %, 땅속에 묻는 법이 21 %, 불태우는 법이 38 %로써 바다에 띄우는 법이 불태우는 법 다음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데 이는 어촌부락도 포함해서 조사한 까닭으로 여겨진다. 불태울 때의 재료로는 얇지 않은 미끈한 나무로 태워야 아기피부가 얇지 않고 곱다는 俗信도 있으며, 태반을 태우고 남은 재가 딱딱하면 장수할 아기라 하고, 남은 재가 가루가 되어 부수어지면 단명할 징조로 보았다. 땅속에 묻는 경우는 대개 단지속에 담아 깊이 파서 묻어야 하고 단지를 묻은 장소에서 벌레가 일거나 물이 고이면 아기의 머리카락이나 피부에 피부염 및 종기가 생기므로 옮겨서 묻어야 한다고 했다. 단지에 묻을 경우는 시일이 지나면 물이 고이게

<sup>74</sup> 고 부자(1976), p. 104.

되는데 이는 간질병이나 결핵병 환자에게는 특효약이 된다하여 흠쳐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태반을 불태우고 남은 덩어리는 잘 보관했다가 아기 머리에 피부염이 생겼을 경우 잘 부수어 머리에 바르면 특효약이 된다고 하였다.

### (3) 태반 처리 장소 및 일시

태반처리 장소로는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반드시 터진 방위를 택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막힌 방위(三煞方)에서 처리하면 동생을 보지 못하거나 자손이 끊긴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거리에 따라 산모가 아기를 자주 낳고 늦게 낳고 한다고 전한다. 즉, 너무 멀리 가서 처리하면 터울이 늦고 가까이에서 하면 자주 임신이 된다고 하였다. 태반처리 일시로는 산후 3일이 되면 해산후 계속 깔고 있었던 짚과 같이 처리하였다.

### 바. 삼 신 상

삼신은 三神이라고도 하고 產神이라고도 하나 대개 世俗에서 保胎의 神을 일러 三神이라 한다. 李能和(1968)<sup>75</sup>는 “우리말에 胎를 가리켜 三이라 하나니 즉, 이른바 三神이라는 것은 곧 胎神을 일컫는 것이라 世俗의 三神의 三으로써 숫자를 만들어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했고 임동권(1984)<sup>76</sup>은 “產神은 속칭, 삼신 할머니라 하여 여신으로 산의 多寡나 有無가 모두 그의 소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삼신이란 잉태를 비롯하여 産에 대한 전반을 관장하는 수호신인 女神으로 생각된다.

삼신을 위하는 목적은 삼신 할머니에 대한 감사와 그 가호를 바라며 산모의 乳道가 풍족하고 유아의 건강, 장수, 복록을 비는데 있다. 산아의 운명은

<sup>75</sup> 이 능화(1968), 「조선무속고」, p.46에서 인용한 안은희(1972), p.44에서 재인용

<sup>76</sup> 임동권(1984), p.163.

産神에 의하여 영향받는 까닭에 성장 과정에도 계속 가호가 있어 훌륭히 자라기를 의도한다. 산모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내에 회복해서 건강하고 乳道가 충분해야만 하기에 아울러 가호를 바라는 뜻에서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도 잉태해서 무사히 순산하기를 목적으로 한다.<sup>77</sup> 삼신상 차림 시행 여부에 있어서 본 조사에서는 차린 경우가 15%, 차리지 않은 경우가 85%이며, 차리지 않은 이유로는 아기에 대해 출생 직후 삼신상을 차리기 시작하면 아기가 버릇이 나서 계속 차려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삼신상 차림에 대해서는 쌀밥 3종지, 쌀 1종지, 냉수 1종지, 미역채 3접시, 기타 나물 종류 3접시를 상위에 놓고 쌀밥 위에는 새끼줄을 5cm 정도 꿰어서 꿰은 다음 상 아래에는 어머니가 시집을 때 해 온 명주치마를 방석대신 깔아서 차렸다. 때로는 아기의 장수를 위해서 상 위에 실타래를 얹어 놓기도 하였다. 삼신 할머니에게 비는 사람은 본인인 어머니이거나, 아니면 무당을 데려다가 빌기도 했다.

#### 사. 탄생표식

분만을 하게 되면 남녀가 구별된다. 따라서 부정을 막기 위한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이 때 禁줄이라 명칭하는 표식물을 출입문이나 방문앞에 치게 된다. 표식물로서의 禁줄은 금기를 목적으로 하는 바, 喪人, 商人, 乞人 등의 출입을 삼가하고 살생, 그 밖의 부정을 막는 것으로 대개 三七日間(21일) 치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금줄은 조사결과 제주 고유의 風俗은 아니며 祭를 지내거나 功을 들일 일이 있을 때 부정 탄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만 사용하였고, 언제부터인가 차츰 출산후에도 유행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한다. 이 또한 금줄도 전통사회에서 처럼 남녀 구별하여 치는 것이 아니라 딸 많은 집에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새끼줄만 꼬아 대문앞에 걸었다. 조사결과 금줄을 친 경우가 18%, 금줄을 치지 않은 경우가 82%에 해당 되었으며 그나

<sup>77</sup> 앞 글, p.165.



마 금줄을 친 18 %도 60세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으로 보면 禁줄표식은 분명 제주 고유의 풍습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 B. 授乳

### 1. 수유방법 및 시간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수유방법이 거의 모유인 것과 같이 제주도 에서의 수유방법도 대부분이 모유이다. 수유시간은 모두가 수시수유이며 수시수유를 할 수 밖에 없는 理由는 아기를 집에다 두면 돌보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구덕에 눕혀 밭에 데리고 나가게 된다. 밭에 데리고 나간 아기를 구덕에 눕힌채 어머니는 옆에서 밭일을 하게되며 아기가 울적마다 젖을 먹었다고 한다. 조사결과 97 %의 사람이 수시 수유를 했다고 했는데, 이는 문 승규 (1973)<sup>78</sup>의 조사에서 나타난 97.7 %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제주 지방에서의 수시수유는 시어머니마저 高齡이라 할지라도 밭에 나가게 되고, 아버지는 밭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育兒는 여자나 하는 허드렛일이라 생각하여 세심한 관여를 보이지 않는 데에서 오는 수시수유이다.

### 2. 출생 직후부터 3 일간의 수유행위

요즈음은 젖이 부족하면 모유 대신 우유로써 영양 공급을 시켜줄 수 있으나 전통사회에서는 모유밖에 없었으므로 젖을 분비하게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출산후 3 일간은 젖의 분비가 안되므로 아기에 대한 수유방법으로는 솜에다 꿀물, 설탕 물을 적서 빨게 하였거나 젖어머니(乳母)의 신세를 지

<sup>78</sup> 문 승규 (1973), p.135.

기도하였다. 이외에도 유모의 신세를 지는 경우에는 산모가 허약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또는 어떤 연유로 모유를 먹이지 못할 때 유모를 얻게 되는데 이에 따른 유모선택법은 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가. 젖이 풍부한 사람

나. 福이 많은 사람

다. 아들을 많이 낳고 잘 키운 사람. 왜냐하면 아기를 잘 키우지 못한 사람은 아기한테 귀삼신(아기를 데려가는 귀신)이 든다고 해서 기피하였다.

라. 성질이 온순한 사람. 왜냐하면 성질이 고약한 사람인 경우는 아기가 일곱달 동안 밤역시(밤중에 울고 보채는 것)를 하기 때문에 기피하였다.

마. 신체에 이상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유모가 불구인 경우는 아기가 잘 아프기 때문에 기피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주도의 유모선택법은 유 안진(1980)<sup>79</sup>이 조사한 유모선택법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되고 있다. 이는 아기에 대해 생리적인 측면에서 우선 포만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젖의 풍부함과, 정서면에 있어서 아기의 心性을 올바르게 착하게 심어줄 수 있는 온순한 성질 등 모든 것이 아기를 위한다는 자체에서는 크게 차이날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 3. 수 유 태 도

전통사회에서의 수유태도는 매우 신중하였고, 수유시의 주의사항도 많았지만, 제주도 부녀자의 수유태도는 그다지 엄격하지도 않았으며 수유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유태도면에 있어서 엄격하게 한 가정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개는 노동에 얽매이고 있는 생활 때문

<sup>79</sup> 유 안진(1980), p.74.

에 母子관계에서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수유시간마저 어머니의 다른 동작과 겹하여 이루어졌다. 즉, 젖을 먹이면서 손으로는 다른 작업을 하였고 수유가 이루어진 뒤에는 어머니와 아기는 완전한 개체로 독립되었다. 이러한 수유태도는 진정한 아기의 발육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유태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유태도이다.

극히 일부분에서 행해진 수유태도이지만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유시에는 젖이 풍족하다, 부족하다 등의 말을 삼가한다. 왜냐하면: 삼신할머니가 흉을 보아서 젖이 잘 안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나. 수유시에는 코를 막히지 않게 조심한다.

다. 젖을 먹이면서 손과 발을 주물러 준다.

라. 初乳인 경우는 짜서 버리고, 초유 후부터 나온 젖을 먹인다. 왜냐하면 초유는 배안에서 먹다 남은 것이므로 썩은 젖이라는 이유이다.

마. 여름철에는 젖을 냉수로 씻은 다음, 수유부는 냉수 한 그릇을 마시고 몸과 마음을 식혀 수유한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더운 젖을 먹이게 되면 아기가 설사하기 때문이다.

바. 젖을 잘 안먹는 아기는 착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젖을 먹인다.

사. 젖은 잘 주물러 통하게 한 다음 먹인다.

아. 젖을 먹다가 얹히면 머리 가운데 즉, 대천문 있는 곳을 붙여준다.

자.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기가 동시에 먹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식사할 때마다 아기도 젖 달라고 보채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라”의 경우, 초유는 현대 사회에서는 배설 효과가 크고 면역체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꼭 먹이도록 권장하고 있는 반면 여기서는 반대로

씩은 젖이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젖은 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젖부터 먹이도록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4. 젖을 풍부히 나오게 하는 방법

요즈음은 젖이 부족하면 모유 대신 우유로써 영양공급을 시켜줄 수 있으나 전통사회에서는 이 방법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모유의 부족은 유아의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유아의 건강을 염려하여 산모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젖을 풍부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젖을 풍부히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는 表 17 과 같다.

表 17. 乳 道 方 法

행 위	유 도 방 법	인원(N)	비 고
음 식 물	돼지족발을 끓여서 마시거나 죽을 쑤어서 먹는다.	31	수치는 빈
	생선국, 특히 옥돔이나 북바리국을 먹는다.	23	도수를 말
	감주를 마신다.	9	하며 복수
	암소젖통 2 개를 삶아 먹는다.	4	응답임
	암닭 한마리에 모래방풍(해초류)을 넣어 고아서 먹는다.	2	
	상추씨를 쌀죽에 타서 먹는다.	1	
주 술	무당을 데려다가 삼신할머니에게 비는데 빌 때는 병 2 개에다 물을 가득 붓고, 산모의 머리타래를 양가래로 나누어 푼 다음, 머리에 비우면서 빈다.	17	

이와같이 재미있는 방법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豚足を 고아 먹는 일은 영양 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며, 海魚국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나 여타의 방법은 너무 비약적이며, 지나친 유사작용이 작용해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을 보지 못하면 유모를 구하거나 아기죽을 끓여먹

였는데 아기죽이란 쌀을 물에 불려서 산모의 이빨로 씹어 으갠 뒤 그릇에 담아 밥술에 찼 음식이며, 쌀이 귀한 그 당시에는 가장 영양이 좋은 음식으로 여겨졌으나, 이 죽도 모유 만큼은 영양가가 없어서 아기죽을 먹고 자란 아기는 항상 소화 능력이 나빠 모유로 키운 아기에 비해 몸이 허약했었다고 한다. 또한 젓구멍이 막혀서 젖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돼지털로 젓구멍을 뚫어주기도 하고 면화씨를 먹기도 했다. 젖이 너무 풍부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깨끗한 곳에 버려야 하며, 부정한 곳에 부르면 삼신할머니가 노해서 곧 젖이 부족하게 된다 하여 정성을 들여 깨끗한 곳에 버렸다. 버리는 장소로는 집 뒷곁에 있는 처마밑 물내리는 곳, 또는 샘물가와 깨끗한 땅 등이다.

### C. 離乳

#### 1. 이 유 시 기

이유시기는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제주도에서도 3~4세로 접어들면서 이 유가 시작되었다.

表 18. 이 유 개 시 기

이 유 개 시 기	인 원 (N)
동생을 보면서 (3~4세)	28
돌 지나면서	4
5 세	1
계	33

表 18 과 같이 동생을 보는 시기 즉, 3~4세가 가장 많으며 5세까지 먹

인 경우는 동생이 없는 막내였으므로 오래 먹었다. 이는 유 안진(1980)<sup>80</sup>과 문 승규(1973)<sup>81</sup>의 조사결과 모유 공급이 대개 다음 임신까지 2~3년 동안 지속된 것이 상례라고 한 것과 거의 일치함을 보여 주었다. 여 중철(1982)<sup>82</sup>은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농촌을 현지 조사한 결과, 이유시키는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아들을 딸보다 더 오래 먹인 관계로 남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제주도에서의 이유시키는 남녀 아동에 차이가 없었다.

## 2. 이유의 담당자

전통사회에서의 이유는 祖母의 역할이 대단히 의미있고 중요하게 나타난 유 안진(1980)<sup>83</sup>의 조사와는 달리, 본 조사에서의 이유 담당자는 表 19와 같다.

表 19. 이 유 담 당 자

이 유 담 당 자	인 원 (N)
본 인 ( 어 머 니 )	29
시 어 머 니	3
남 편	1
계	33

離乳시킬 때의 주책임자는 본인인 어머니가 29명, 시어머니가 3명, 남편이 1명으로 본인인 어머니가 제일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祖母의 도움을 받지 못한 理由로는 제주 여성의 성실과 근면성에 관계되는

<sup>80</sup> 유 안진 (1980), p.89.

<sup>81</sup> 문 승규 (1973), p.119.

<sup>82</sup> 여 중철 (1982), “농촌의 육아방식과 초기 사회화 과정”, 제 4 회 한국아동 학회발표 논문, pp. 45-48.

<sup>83</sup> 유 안진 (1980), p.92.

것으로 나이가 들어도 어느 정도의 노동력만 있으면 할머니 일지라도 밭에 나가 일하게 되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 라고 응답하였다.

### 3. 이 유 방 법

제주도의 이유방법에는 어머니의 젖꼭지에 무엇인가를 부착시키는 방법과 또는 아이의 수치심을 자극해서 이유시키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이유방법은 表 20 과 같다.

表 20. 이 유 방 법

이 유 방 법	인 원 (N)	비 고
붉은 물	29	수치는 빈도수를 말하며 복수 응답임.
먹물	28	
고추장	26	
고추	21	
숯	11	
종이	7	
금 자 락 ( 쓴약 )	5	
풀잎	3	
수치심을 이용한다.	7	

부착시키는 방법으로는 붉은 물을 바르는 경우가 제일 높았고 (29명), 그 외에 밭에 나갔을 때에는 풀잎을 이용해서 이유시켰다. 수치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아이에게 “지금까지 젖을 먹는 것을 보니 송아지 새끼구나” 라고 놀려 수치심을 자극하여 젖을 떼었다. 유 안진 (1980)<sup>84</sup>에 의하면, 전통사회에서는 또 하나의 이유방법으로 祖母의 빈젖빨기로 별 탈없이 자연스럽게 離乳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하나 제주도에서는 빈젖을 빨면 거짓말 잘

<sup>84</sup> 유 안진 (1980), p.92.

한다 하여 기피하여 왔다. 成人이 되어서도 허튼 소리를 잘하면 “빈젓 빨고 자란 놈”이라고 놀려 祖母의 빈젓빨기는 이유방법으로는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질적인 理由로는 祖母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이유방법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방법을 모두 사용해도 끝까지 젓에 메달리는 아기는 때리든지, 아니면 낮인 경우는 손 위 형제들에 의해 돌보게하여 밭에 나가버리고 밤인 경우는 할머니가 데리고 자는 방법을 택하였다.

#### 4. 이 유 식

제주도에서는 이유식이라 하여 별달리 따로 정해진 음식이 없었다. 위낙 식량이 부족하고 생활이 어려웠던 관계로 아이를 위한 음식은 없었고, 주로 성인의 음식에서 자극성만 없게 하여 담백하게 먹일 정도였다. 이유식으로는 보리밥, 좁쌀죽이며 대개가 밥을 국에다 말아 먹었다. 간식으로는 찢고구마이며 상류 가정에서나 쌀밥, 혹은 밥에다 참기름을 섞은 참기름밥을 먹었다. 제주도는 주로 밭농사이므로 쌀이 귀한 탓에 이유식으로 쌀밥은 거의 보기가 힘들고 가끔 제사가 있는 날에나 먹일 정도였다.

#### D. 排便訓練

幼兒들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나 대략 생후 1년이 지나야 걸음을 걷기 시작하게 되며 여아는 남아보다 걸음걸기 습득이 약간 빠른 편이다. 이 보행의 습득에 앞서서 배변훈련이 시작되는데 전통사회의 배변훈련은 유 안진(1980)<sup>85</sup>에 따르면, 이유의 시기와 같이 특정한 시기가 없었고 때가되면 가린다는 느긋한 태도였다. 이러한 理由로는 가옥 구조가 온돌바닥이라는 점

<sup>85</sup> 유 안진(1980), p.92.



과 변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조사된 배변훈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배변훈련 시기와 태도

제주도에서의 배변훈련 시기는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고 대개가 幼兒가 말을 시작해서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3~4세부터 배변훈련 시기에 들어간다. 조사된 배변훈련 시기를 보면 表 21과 같다.

表 21. 배 변 훈 련 시 기

배 변 훈 련 시 기	인 원 (N)
3 ~ 4 세	21
첫 돌	9
5 세	3
계	33

3~4세가 되어 배변훈련을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높은 결과(21명)를 보였고 5세인 경우는 야뇨증을 동반한 아동으로 특수한 경우였다. 문 승규(1973)<sup>86</sup>의 연구에 의하면 소변 가리기는 평균 1년 $\frac{1}{2}$ 개월, 대변 가리기는 1년 5개월~6개월에 시작된다고 하였으며, 여 중철(1982)<sup>87</sup>의 연구에서는 2년 6개월에 배변훈련을 시작하였고 대변 가리기는 이보다 2달정도 늦게 시작한다고 하였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소변과 대변 가리기가 시기면에 있어서 특별히 차이를 두어 훈련시키지는 않았다. 제주도의 배변훈련 시기는 문 승규의 조사결과 보다는 조금 늦은 편이며 여 중철의 조사결과와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sup>86</sup> 문 승규(1976), p. 136.

<sup>87</sup> 여 중철(1982), p. 48.

배변훈련 시기가 늦은 理由로는 배변훈련 태도가 전통사회에서는 느긋하고 칭찬과 격려로 훈련되는 관용스러운 태도와는 달리 祖母와 어머니의 바쁜 농사일 때문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 늦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배변훈련 과업은 거의가 幼兒 자신이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완수해 나갔다. 즉, 어린이가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배변의사표현과 함께 어머니가 옆에서 협조하여 줄 정도였다. 돌이 지나면서 훈련시킨 경우는 집안에 형제가 있는 경우로, 손 위 형제에 의해 훈련되어졌다.

## 2 배변훈련의 담당자

전통사회에서의 배변훈련 담당자는 이유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幼兒가 祖母와 함께 기거하는 까닭으로 저절로 祖母의 소관이 되었다.<sup>88</sup> 전통사회에 비하여 제주도의 배변훈련 담당자는 조사결과 表 22 와 같다.

表 22. 배 변 훈 련 담 당 자

배 변 훈 련 담 당 자	인 원 (N)
본 인 (어 모 니)	26
祖 母	3
아 버 지	1
형 제	3
계	33

배변훈련 담당자는 어머니인 경우가 26 명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고 祖母인 경우는 3 명, 남편인 아버지의 경우가 3 명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조모의 바쁜 농사일과, 육아는 여자나 하는 허드렛 일이라 생각한 남편들의 비협조때문이라 여겨진다.

<sup>88</sup> 유 안진 (1980), p. 92.

### 3. 대소변 용기와 장소

제주도에서의 대소변 용기는 “좁박”이라 하여 나무로 만든 바가지 형태의 변기가 사용되었다. 乳兒期에는 “좁박”에다 재를 담아 아기구덕 속에 넣은 뒤 그 위에 보릿짚을 깔고 다시 담요를 덮어 그 위에 아기를 눕혔다. 좁박에다 재를 담는 理由는 아기구덕을 흔들어도 오줌이 쏟아질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幼兒期의 대소변 용기로는 보릿짚과 좁박이 이용되었다. 대소변 장소로는 겨울철인 경우는 대개가 방과 마루에서 행해졌고, 여름철인 경우는 주로 마당에서 이루어졌다.

### 4. 기저귀 착용

제주도에서는 옷감이 귀했던 관계로 지저귀 착용은 거의 하지 않았다. 천이 귀한 탓도 있겠지만 그 당시 제주도의 4·3 사건으로 인해 의복과 신발을 모두 벗겨갈 정도여서 옷도 변변치 않았는데 기저귀 착용은 엄두도 못내었다고 한다.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은 관계로 아기를 등에 업었을 경우는 등이 오줌으로 젖어 등복판에 습진이 생길 정도였다고 한다. 그나마 乳兒가 커가면서는 “지성치마”라 하여 쓰다 남은 갈증이\* 천으로 앞치마와 같이 만들어 밑에만 겨우 가리고 아래는 트여서 대소변 보기에 좋게끔 만들어서 착용하였다.

### 5. 야뇨증 치료법

어린이가 4~5세 될 때까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취침중 失尿를 자주하게 되면 특별한 방편을 써서 야뇨증을 치료하게 된다. 그 치료법으로는

---

\* 제주도 특유의 옷감으로 무명옷에다 감물을 들여 만든 것으로 용도는 대개가 노동복이며 갈옷이라고도 한다.

거의가 이부자리에 오줌을 누 다음날 아침, 키와 빗자루를 주면서 이웃집에 가서 소금을 빌어 오도록 보낸다. 이웃집에서는 소금을 키에 조금 넣어 준 다음 키를 그 아이 머리위에 얹어 썩우고 “오줌싸라, 똥싸라” 라고 거듭 외치면서 빗자루로 한참 때려 주는데 이러고 나면 야뇨증이 치료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방법은 어린이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여 야뇨증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이러한 야뇨증 치료법은 유 안진(1984)<sup>89</sup>이 조사한 야뇨증 치료법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 E. 誕生日 風俗

낳은 날로부터 돌까지에 이르는 탄생아를 위한 주기적인 행사를 말하며 제주 지방에는 3일행사, 7일행사, 百日행사, 돌행사가 있다. 탄생일에 따른 風俗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3 일 행 사

출생후 3일째 되는 날은 아침 일찍 산모와 아기는 쑥물로 머리와 몸을 씻고 아기밥을 지어 삼신할머니에게 빌어준다. 이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이며, 할머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행하여졌다. 아기밥은 친정어머니가 단지 쌀밥과 생선미역국만을 준비하여 아기 앞에 차려 놓아 주는 것이다. 또한 시어머니는 3일째 되는 날에 일반적으로 아기구덕을 사준다. 그리고 아기를 못낳는 부녀자인 경우에는 3일행사를 하는 집이 아기밥을 맨 윗부분으로 집어 먹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俗信도 있다.

<sup>89</sup> 유 안진(1984), p.158.

## 2. 7 일 행 사

7 일째 행사는 3 일행사를 한 경우에는 거의 생략하였고, 3 일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 일행사를 3 일행사의 형식과 동일하게 치렀다. 제주도에서는 매월 3 일과 7 일을 삼신할머니날이라 하여 아기가 아프면 그 중 하루를 택하여 삼신상을 차려 빌어 주었다.

## 3. 백 일 행 사

백일행사는 3 일 · 7 일행사가 지난 후 아기를 위한 가장 큰 행사라 할 수 있다. 3 일과 7 일행사는 산모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백일은 영아의 발육을 경하하는 날이 된다. 제주도에서는 백일잔치라기 보다는 간단한 아기비념 행사로 삼신상을 차려 무당에게 아기의 무병장수를 빌어 주게 하는데 그친다. 삼신상 차림에는 냉수 1 그릇, 쌀밥 3 그릇, 쌀 1 종지, 향불 등이다. 무당에 대한 보수로는 쌀 한말 정도이거나 무보수인 경우도 있다.

## 4. 돌 잔 치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년이 되는 날에 돌잔치를 하게 된다. 돌잔치에는 백일때와 같이 삼신상을 차려 빌어 주는데 상 위에는 붓, 책, 돈, 실, 벼루, 가위, 밥, 흙, 자귀 등 “돌잡이”를 올려 놓아서 아기가 잡는 것에 따라 아기의 장래를 점쳐보기도 한다. 이러한 돌잡이를 試周라고 하고, 마음에 맞는 물건을 고르게 하여 장래를 점치는 것을 試兒라 한다.<sup>90</sup> 붓, 책, 벼루 등을 잡을 경우는 공부를 잘해서 벼슬을 한다고 하고, 돈과 밥을 잡을 경우에는 유복하여 부자로 살고, 실을 잡을 경우는 장수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가위

<sup>90</sup> 이 두현, 장 주근, 이 광규 (1975), 「한국민속학 개설」, (서울 : 민중서관), p.6

를 잡으면 바느질을 잘한다고 한다. 흙을 잡을 경우에는 단명하거나 농부가 되든지 하고, 망치나 자귀를 잡을 경우는 공부를 못하여 부모의 속을 썩인다고 하였다. 돌상 위에 올리는 돌잡이의 종류는 육지 지방과 거의 동일하다. 이와같이 아기에 대한 탄생일 풍속 등이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워낙 생활이 궁핍하여 上記와 같은 축하 행사는 풍족하거나 아기를 귀하게 여기는 집안에서만 일부 행해졌을 뿐이다. 조사결과 백일잔치를 시행한 경우가 6%에 불과하고,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94%였으며 돌잔치는 15%가 시행하였고, 85%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잔치가 백일잔치에 비해 그나마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거의 아기에 대한 행사는 하지 않고 삼신상 정도만 차려서 삼신할머니에게 빌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문 승규(1973)<sup>91</sup>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50세이상 노년층인 경우 백일잔치 시행이 20.2%, 돌잔치 시행은 66.3%에 비하면 제주도에서는 거의 생략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축하 행사를 하지 않은 理由로는 제주도민의 궁핍한 생활에 따른 경제적 여건 때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기에게 지나치게 정성을 들이면 아기가 단명하거나 자주 아프다는 이유로 마음의 위안을 삼은 듯하다.

#### F. 子女觀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자녀관에 있어서는 딸보다는 아들을 중요시하였다. 아들도 하나가 아닌 多男을 원했을 정도로 남아선호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多男의 원인을 손 인수(1978)<sup>92</sup>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sup>91</sup> 문 승규(1973), p.136.

<sup>92</sup> 손 인수(1978),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문음사), pp.67-68.

가족주의적 가치관에서의 자녀는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조선시대가 농사를 가족의 경제적인 기초로 삼고 발전하였으니 노동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자녀를 필요로 하였다. 또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당시로는 우선 <많이 낳고 보자>는 태도를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의학과 위생의 미발달로 생명이 길지 못하던 때에는 가족내에서의 죽음은 빈번한 것이었다. 특히 유아의 사망과 산모의 사망은 더욱 빈번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부모들은 많은 자녀들을 갖기를 원하였고, 그중에 적어도 일부는 생존하리라 기대하였다. 이러한 몇가지 이유 등으로 조선시대의 부모들은 우선 <많이 낳고 보자>는 태도와 아울러 <제 먹을 것은 타고 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복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전통사회의 가치관이 家父長制 계승을 위한 남아 존중의 가치였으므로 전통사회의 여성들은 아들을 낳아야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아들을 양육하고 잘 기르는 것이 모성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유교에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을 獨이라 하여 가엾은 대우를 해왔는데, 유교 윤리가 지배했던 조선시대에는 자손의 번창을 위해 일부다처가 비공식적으로 허용되기까지 하여 소위 <妾>의 존재가 묵인되었을 정도<sup>93</sup>로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했으며, 특히 남아선호 사상이 높았다. 남아는 가계계승의 역할 이외에도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역할 때문에 더욱 중요시하게 되고, 이러한 가치는 유교 윤리가 토착화됨에 따라 더 강화 되었으리라 본다. 그러면 이러한 전통사회의 자녀관에 비해 제주도 부녀자의 자녀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녀를 원하는 이유 및 자녀를 원한다면 딸, 아들중에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자식을 원

<sup>93</sup> 유 안진 (1980), p. 194.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으레히 낳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러면 자녀를 원한다면 딸, 아들중에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表 23. 딸, 아들에 대한 선호도

응답 내용	인원 (N)
아들을 원한다.	29
아들, 딸 모두 원한다	4
계	33

제주도 부녀자의 자녀관은 아들을 원한다가 29명, 아들과 딸, 전부를 원한다가 4명으로 아들을 원한다는 편이 훨씬 높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제주도에서도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남아선호가 높음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 2. 아들을 원하는 이유

자녀중 특히 아들을 원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응답 내용은 表 24와 같다.

表 24. 남아선호의 이유

응답 내용	인원 (N)	비고
제사와 성묘	23	수치는 빈도수를 말하며 복수 응답임.
가계계승	12	
노후봉양	9	
심리적 안정감	3	

조상에 대한 제사와 성묘가 23명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계승을 위해서가 12명, 노후봉양이 9명, 아들이 있으면 노후봉양은



받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다가 3명이다. 노후봉양면에 있어서는 딸이 아들보다 더 낫다 라고 응답한 부녀자도 12명이나 되어 노후봉양면에서는 아들보다 딸이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남아선호의 이유는 박 인덕(1980)<sup>94</sup>이 조사한 남아선호 이유 즉, “사후제사문제, 성묘, 노후봉양, 가계계승을 위한 문제 때문이다”가 72%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3. 아들이 없는 경우 대리계승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응답내용은 表 25와 같다.

表 25. 대 리 계 승 자

대 리 계 승 자	인 원 (N)
췌 의 아 들	29
양 자	3
딸	1
계	33

췌의 아들로 하여금 대리계승 시키겠다고 29명, 양자가 3명, 딸이 1명으로 췌의 아들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손 인수(1978)<sup>95</sup>가 지적한 바와 같이 첩의 존재가 묵인될 정도로 남편의 핏줄, 특히 아들로 인해 가계계승을 시키겠다고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이 효재(1972)<sup>96</sup>의 “한국인의 아들에 대한 태도와 가족계획연구”에서 “자신의

<sup>94</sup> 박 인덕(1980), p.92.

<sup>95</sup> 손 인수(1978), p.68.

<sup>96</sup> 이 효재(1972), “한국인의 아들에 대한 태도와 가족계획”, 「논총」 제2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문화연구원), p.64.

아들이 없는 경우 남편에게 첩을 허락하겠다 ”가 50 %, 박 인덕 (1980)<sup>97</sup>의 “ 한국 가정생활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에서 “ 아들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밖에서 낳아 데려온다 ”가 5.88 %로 이와 비교해 보면 제주도 부녀자의 남아선호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대상자 전체가 “ 늙어서 기동력이 없을 때만을 제외하고는 따로 살겠다 ”고 응답하여서 이는 제주도 특유의 가족형태에 따른 결과라 생각된다.

제주도에는 한 울타리 안에 침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집이 두 채가 있다. 대문에서 볼 때 안쪽에 있는 집을 안거리 (안채), 그 맞은편에 있는 집을 밖거리 (사랑채)라고 한다. 이 두 채의 집은 크기에도 차이가 있으며, 보통 안거리는 크고, 밖거리는 작으며, 부엌이 따로 있어 각각 다른 취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창고도 따로 있어서 서로 다른 경제단위를 갖고 있다. 부모와 자식 부부의 한 가족이 별개의 취사장소와 경제단위를 갖추고 한 울타리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그어진 점유 공간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父, 子의 가족 중 어느 쪽이 안거리에서 생활하는가는 가족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개 부모가 안거리를 사용하고 장남이 결혼하면 밖거리에 별거시킨다.<sup>98</sup> 또한 제주도의 父母는 노경에 이르러도 가능한 독립취사와 생계를 꾸려나가며 밖거리에 사는 며느리는 시부모를 위하여 취사를 준비하는 법이 없다. 만일 父母중 一方이 사망하여 노동과 유지능력이 없어지면 장남에게 부양을 받는다. 그러나 부모 중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여 父만 생존할 경우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취사를 준비하지만 父가 먼저 사망하고 母만 있을 경우에는 母의 취사

<sup>97</sup> 박 인덕 (1980), p. 96.

<sup>98</sup> 현 용준 (1973), 「 가족 »,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 종합 조사보고서, 민속 편 제 1 편, ( 제주도청 ), pp. 70 - 90.

능력이 있는 동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한 취사 준비를 하지 않는다.<sup>99</sup> 시어머니 쪽에서도 자신의 노동 능력이 있는 동안 며느리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가족형태의 배경속에서 자라온 제주 여성들은 父母에게 의존하려 하지도 않고 또한 父母 역시,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은 자식을 괴롭히는 일이라 생각하여 따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기동력이 없는 경우에만 자식과 동거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는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表 26 과 같다.

表 26. 노후에 부양받고 싶은 대상

대	상	인 원 (N)
장	남	18
부모를	부양하고자 하는 자식	14
차	남	1
	계	33

장남하고 살겠다가 18명, 장남, 차남을 막론하고 父母를 모실려고 하는 자식과 살겠다가 14명, 장남은 제사 및 성묘 등의 과업이 많으므로 차남하고 살겠다가 1명으로 전통사회에서의 長子 역할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박 인덕(1980)<sup>100</sup>의 “한국 가정생활의 가치관 연구”에서 장남하고 살겠다가 32%로, 제주도의 장남 역할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조상대상자가 高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sup>99</sup> 이 광규(1975), 「한국 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pp.30~33.

<sup>100</sup> 박 인덕(1980), p. 108

5. 딸(여성)의 직업에 대해서는 32명(97%)에 해당되는 부녀자가 딸(여성)도 출가하기 전이나 후에도 계속 직업 갖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경제력 때문이라 하였다. 이는 한국 농촌의 경우“딸도 결혼 후에 계속해서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가 18.63%<sup>101</sup>로 이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 여성들의 강한 생활력과 근면성 등이 뒷받침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6.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내용은 表 27 과 같다.

表 27. 부모가 원하는 자녀들의 효도 형태

응답내용	인원 (N)
본인들만 건전하게 잘 살면 된다.	22
노후 봉양	6
부모의 고마움을 알아만 주면 된다.	5
계	33

본인들만 잘 사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한다가 22명, 노후봉양(기동력이 없을 때의 노후봉양)이 6명, 부모가 자식을 고생시켜도 父母의 고마운 마음을 알아주면 된다가 5명으로 제주에서의 효도 개념은 전통사회에서의 효도 개념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사회에서의 添順, 待中, 扶養, 父母之道의 실천 등의 효도 개념에 비해 본인들만 잘 살면된다 라는 효도 개념은 근대적인 효도관이라 볼 수 있다. 박인덕(1980)<sup>102</sup>의 조사에서는 자녀 자신이 건전하게 사는 것이 효도라 생각한다가 54%, 노

<sup>101</sup> 앞 글, p.106.

<sup>102</sup> 앞 글, (1980), p.99.

후봉양이 12%, 父母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일을 부모님 의사대로 하는 것이 30%로 이와 비교하면 제주도 부녀자들은 타지방의 여성들 보다는 자녀 자신들이 잘 사는 것에 더 높은 결과를 보였고, 노후봉양에 있어서는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자녀에 대한 효도관은 근대적인 효도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7. 자녀의 이점과 불리점을 질문한 결과 응답내용은 表 28, 表 29 와 같다.

表 28. 자녀의 이점

응답 내용	인원 (N)
심리적인 안도감	22
노 후 봉 양	6
가끔씩 방문해 줄 때의 기쁨	3
이점이 없다.	2
계	33

表 29. 자녀의 불리점

응답 내용	인원 (N)
자식이 괴롭히거나 결혼해서 못살 때	17
일을 하지 못해서	7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2
자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서	2
불리점이 없다.	5
계	33

전반적으로 자녀를 갖게 되면 이점, 불리점을 갖게 되지만, 위와같이 자녀에 대해 불리점이 없다는 5명, 자녀에 대해 이점이 없다는 2명으로 불리점이 없는 경우가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제주도 부녀자들은 자녀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이 없는 경우에도 가정

경제상태가 빈한한 가정으로 양육비 지출이 많아 불리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8.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는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表 30 과 같다.

表 30.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

응답내용	인원 (N)
아들, 딸 구별없이 똑같이 공부해서 출세하기를 원한다.	24
아들은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출세하기를 바라고 여자는 시집가서 화목하게 잘 살면 된다.	9
계	33

부모의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는 구별없이 똑같이 공부해서 출세하기를 원한다가 24명, 아들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출세하기를 원하고, 딸은 시집가서 화목하게 자식 낳으면서 잘 사는 것을 원한다가 9명으로 제주도에서는 비록 제사, 성묘 등의 과업으로 아들을 선호하고는 있으나 아들, 딸을 양육하는데 있어서의 기대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 부녀자의 자녀관이 근대적 자녀관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 “가정교육의 담당자는 누구이며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表 31, 表 32 와 같다.

表 31. 가정교육의 담당자

가정교육담당자	인원 (N)
어머니	28
부모공동	3
아버지	2
계	33

表 32 . 교 육 내 용

교 육 내 용	인 원 (N)
농사일, 집안일, 동생 돌보기	25
예 의 범 절	4
공 부	2
인 간 관 계	2
계	33

가정교육의 담당자는 어머니라는 응답이 25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아 이외에 가정교육까지도 전담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어머니가 자신의 바쁜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밭일, 집안일, 동생돌보기 등을 배워주고 있다.

## V. 要的 및 結論

### A. 要 約

育兒方式이란 것이 文化속의 各個 부모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속에서도 공통성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어느 사회에서나 독특한 유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도 제주 지방에서만 특유한 육아방식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대는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육아에 대한 지식, 개념, 행동까지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 본 도 토착민들 사회에서 유지되어 왔던 전통 육아법이 현대 육아법에 의해 점차로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점차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제주도의 전통 육아법을 정리·보존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조사 대상은 제주도의 성읍리, 남읍리, 보성리 3개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高 연령층 부녀자 33명이며, 조사기간은 1986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28일간 현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로는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이며 질문내용으로는 해산전후 습속에 대한 내용 18문항, 탄생일 풍속에 대한 내용 6문항, 수유에 대한 내용 5문항, 이유에 대한 내용 4문항, 배변훈련에 대한 내용 5문항, 자녀관에 대한 내용 9문항,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산전 습속에 있어서 제주도 부녀자의 태몽신뢰도는 신뢰하는 경우가 76%,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6%, 반신반의가 18%로 신뢰하고 있는 편이 훨씬 높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태몽에 있어서는 남아는 크고 역센 숫놈들이며, 여아는 반대로 작고 연약한 것들이다. 태몽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섬인 관계로 허벅과 아기구덕의 등장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임신 중의 금기로는 飮食과 事象面으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이는 대개가 “類는 類를 낳는다”라는 類似連想作用에 의한 것이 많았고 음식물 금기는 당시 사회의 궁핍한 생활난으로 인해 금기하면서까지 먹을 음식이 없어서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2. 해산후 습속으로는 해산수발담당자인 경우 24 명이 本人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産의 고통과 함께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으며, 태반처리법으로는 28 명이 불태우고 있고, 5 명이 땅속에 묻었다. 해산후 산모의 음식으로는 거의 모두가 메밀수제비를 먹었으며, 이 음식은 산후에 지혈이 잘되고 피가 아래로 흘러 내리게 한다고 하여 많이 먹고 있다.

3. 제주도의 수유방법은 거의가 모유 공급이며, 시간은 아기가 원할 때 마다 수시로 주는 수시수유이다. 수유시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아기가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이고 있으나, 수유태도면에 있어서는 아기 발육을 위한 수유시간이라기 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의 수유시간이었다. 그 외에 수유시 주의사항으로는 어머니의 바쁜 家外 노동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4. 이유시기는 대개 동생을 보게되면서 시작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붉은 물, 먹물, 고추장, 고추, 숯, 종이, 금자락, 풀잎 등을 유두에 붙여서 이유시키고 있으며, 그 이외에 아이의 수치심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두가지 방법으로도 안될 경우에는 밤에 할머니가 데리고 자는 방법을 택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父母의 빈젓빨기가 이유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제주도에서는 거짓말을 잘한다 하여 피하고 있다. 이유의 담당자로는 29 명이 본인인 어머니가 시행하고 있다.

5. 제주도에서는 백일과 돌잔치를 간략하게 벌어주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백일잔치는 시행한 경우가 6%,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94%였으며, 돌잔치는 15%가 시행하였고, 85%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배변훈련 시기는 대개가 幼兒가 말을 시작하면서 행해졌고 어머니나 그 이외 가족들은 幼兒의 배변 의사표시와 함께 협조하여 주는 정도였다.

7. 제주도 부녀자의 자녀관은 아들을 원하는 경우가 29명, 아들, 딸 모두 원한다가 4명으로 남아선호가 높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남아선호의 이유는 제사, 성묘, 代를 잇기위한 문제, 노후봉양 등이다.

부모가 원하는 자녀들의 효도형태는 122명의 부녀자가 본인들만 잘 살면 된다고 응답하여 제주 부녀자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대체적으로 근대적이 자녀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딸(여성)의 직업에 대해서도 32명이 출가하기 전이나 후에도 계속 활동하기를 원하며, 그 이유는 경제력 때문이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 부녀자의 강한 생활력과 독립심, 근면성에서 오는 결과로 해석된다.

## B. 結 論

사회 구조적인 것, 인습적인 것은 그 지방의 문화 양상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데 특히 여성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특정문화는 특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産과 育兒는 더욱 그러하다. 제주도는 타 지방에 비해서 여성의 노동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체적 장애는 물론 임신, 출산에 대한 피해도 막대하였으나 표면화시킬 수 없는 실정이었다. 오히려,

産에 대한 관심도나 치성, 산욕기간 등은 사치스럽게 여겨져 왔으며 자신의 사주팔자로 돌리는 편이 훨씬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성의 본능적 욕구와 집념속에서 많은 事例들이 생겼던 것이다. 당시 사회에서는 生活의 고통과 더불어 人命은 在天이라는 관념속에서 아기의 命이 길면 살고, 짧으면 죽을 것이며, 모든 疾病과 命은 神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다. 공동묘지에는 어른무덤보다 아기무덤이 훨씬 많았다고 하는 어느 古老의 이야기와 같이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당시 社會에서는 祖上이나 父母는 무한한 정성과 사죄의 행위로 주술과 치성의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육아의 주책임자는 여자였으며, 이러한 育兒 역시 여자나 하는 허드렛일로 단정되어 왔던 당시 社會에서는 모든 것이 여자로 태어난 죄와 사주팔자 탓으로 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배경속에서의 육아는 현대적인 육아의 의미와 부모자녀 관계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육아 행동이 생활의 문제와 함께 행하여졌기 때문에 幼兒 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과업도 많았고, 주위의 형제들과 함께 저절로 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아기 중심적인 수유태도라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의 수유시간의 태도와 유아 자신의 배변 의사표시와 함께 훈련이 가능했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이와같은 모든 事例들이 과거에 인습적으로 지켜져왔던 정도로 생각되어지고 있고 또한 그 사회속에서 살아온 古老들까지도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렇게 희미한 기억으로 소멸되기 이전에 다소나마 전통 육아속을 정리·보존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여 보면, 첫째 현대는 문명의 발달과 현대 육아법에 의해 전통 육아법이 소멸되기가 쉽다. 그러나 전통 육아법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면도 찾아볼 수 있어서, 이러한 전통 육아법이 타 지방에서도 계속 수집되어

상호 비교하는 연구가 있어야 하겠고, 둘째 본 연구는 중산간 부락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제주도가 섬인 관계로 바다와 접하고 있는 어촌 부락도 포함시켜 비교하는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 參 考 文 獻

- 강 신선 (1983), " 농촌 어머니의 육아 관행에 대한 연구 ",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 고 부자 (1971), "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 \_\_\_\_\_ (1976), " 제주도의 산전숙 ", 「 국제대학논문집 」 14 집, pp.18~37.
- \_\_\_\_\_ (1976), " 제주도의 산후숙 ", 「 한국민속학 」 9 집, pp.93~108
- \_\_\_\_\_ (1977), " 제주도의 육아숙 ", 「 국제대학논문집 」 4 . 5합집, pp.377~410
- 김 양순 (1977), " 제주도의 가족생활실태 일부에 관한 연구 ", 「 대한 가정학회지 」 15 권 1 호, pp.56~69.
- 김 영돈 (1967), " 제주도민의 통과례 (산육편) ", 「 제주도 」 32 호, 제주도청 , pp.14~29.
- 문 승규 (1973), " 한국 농촌에 있어서의 육아관행 ", 「 한국연구총서 」 I, 고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 pp. 112~140.
- 박 인덕 (1980), " 한국 가정생활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 손 인수 (1978), 「 한국인의 가치관 」, 서울 : 문음사
- 성 은모 (1982), " 한국 어머니의 육아법에 관한 조사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 안 은희 (1972), " 산숙의 연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 양 익철 (1977), " 지역사회 개발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제주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여 중철 (1982), " 농촌의 육아방식과 초기사회화 과정 ", 제 4 회 아동학회 발표 논문 .

우 영희 (1970), " 어린이 성격과 육아조건 ", 「 국민대학 논문집 」, pp.299~338.

유 안진 (1980), 「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 서울 : 정민사 .

\_\_\_\_\_ (1982), 「 육아론 」, 서울 : 문음사 .

\_\_\_\_\_ (1983), " 한국 전통사회의 특성과 초기사회화 ", 「 논총 」 83-1,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pp.31~114.

윤 태림 (1964), 「 한국인의 성격 」, 서울 : 현대교육 총서출판사 .

\_\_\_\_\_ (1970), 「 한국인 」, 서울 : 현대교육 총서출판사 .

이 광규 (1975), 「 한국 가족의 구조 분석 」, 서울 : 일지사 .

이 영 (1974), " 한국인의 전통적인 육아법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이 영애 (1973), " 부모의 대인관 및 자녀관이 자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이 원영 (1966), " 아동의 사회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방법 및 태도에 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이 정덕, 박 영진 (1984), " 한국과 일본의 육아방식에 관한 비교 연구 ", 「 대한 가정학회지 」 22 권 1 호, pp.141~156.

이 두현, 장 주근, 이 광규 (1975), 「 한국민속학 개설 」, 서울 : 민중서관 .

이 효재 (1972), " 한국인의 아들에 대한 태도와 가족계획 ", 「 논총 」 제2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이 효재 (1984), 「 가족과 사회 」, 서울 : 경문사.

임 동권 (1984), 「 한국 민속학 논고 」, 서울 : 집문당.

제주高氏중양종문회 (1973), 「高氏世錄」, 서울: 광명인쇄공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제주 연구의 현황과 발전」 제 2 회 탐라문화학술회의,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_\_\_\_\_ (1983), 「탐라문화」 2 호,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도 (1982), 「제주도의 문화유산」, 제주: 제주도청.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주도 편 제 5 집, 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현 용준 (1973), 「가족」,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 제 1 편,

제주: 제주도청, pp.70~80.

현 해경 (1977), “제주도 복식에 관한 연구”, 수도여자사범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홍 이섭 (1972), “구미인의 한국여성관”, 「아세아 여성연구」 제 1 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 pp.18~29.

Benedict, R (1981), Patterns of Culture, N. Y: The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Literature Inc.

Blum, G. (1953), Psycho Analytic Theories of Personality, N. Y: McGraw Hill

Erikson, Erick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 Y: W. W. Norton & Company Inc.

Fawcett. T. Arnold, R. A. Bulatao, C. Buripakdis. B. J. Chung. J. T.

Iritani, S. J. Lee and T. S. Wu (1975), The Value of Children, Hawaii: EWPI

Frank, L. K. (1939), “Cultural Coerecion and Indidividual Distortion Psychiatry, 2, pp.21~22.

Honigman , John. J. C (1954) , Culture and Personality , N. Y : Harper & Brother .

Whitting John. W. M , and Irvin L . Child (1953) , Child Training and Personality ,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 . Press .

Kardiner , A . (1950) , The Psychological Frontiers of Society , N . Y : Columbia Univ. Press .

Malcore, L. and Margaret, E . (1945) , "Friers' Research in Problems of Infancy and Childhood", Psycholanal, Study of the Child, N. Y : Row Peter and Co.

Margaret A. Ribble (1943) , The Rights of Infants : Early Psychological Needs and Their Satisfaction , N. Y : Columbia Univ. Press .

Orlansky , H (1949) , "Infancy Care and Personality", Psycho Bull 46 ,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pp. 1~48.

Sears , Robert R , and Maccaby , Eleavor E . , and Levin H . (1957) , Pattern of Child Rearing , N . Y : Row Peaterson and Company .

Swell , W. H (1952) , " Infant Training and the Personality of the Chil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pp. 150~159.



## 附 錄

부록 1. 면접대상자 명단

번호	성명	주소	연령	직업	교육정도	출산수	비고	
1	강아기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	1,733	81	농업	무학	8	3명없음
2	고농옥	"	1,410	91	"	"	6	1 "
3	김기춘	"	1,751	78	"	"	10	3 "
4	김복선	"	1,660	60	"	야학	11	2 "
5	김복순	"	1,617	58	"	"	8	3 "
6	김정효	"	2,069	66	"	무학	2	
7	변이나	"	2,270	70	"	"	11	3 "
8	성영희	"	1,411	79	"	"	3	
9	진무생	"	111	89	"	"	7	5 "
10	진희비	"	1,700	58	"	"	7	
11	현규인	"	1,658	69	"	야학	10	2 "
12	송금석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710	79	"	무학	7	4 "
13	김연숙	"	719	63	"	"	6	
14	장춘녀	"	817	79	"	"	7	
15	홍양구	"	818	85	"	야학	2	
16	송봉숙	"	813	59	"	무학	3	
17	김경옥	"	891	68	"	"	9	4 "

번호	성명	주소	연령	직업	교육정도	출신수	비고
18	강정자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82	62	농업	무학	2	
19	문금선	" 606	56	"	국졸	9	
20	강인옥	" 679	65	"	"	8	2명임음
21	홍금옥	" 781	55	"	무학	2	
22	송신득	" 879	76	"	"	3	
23	송영추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1,510	81	"	"	9	2 "
24	이옥길	" 1,639	77	"	"	4	
25	이영옥	" 1,738	59	상업	국졸	6	2 "
26	이정안	" 1,257	68	농업	무학	12	7 "
27	진하춘	" 1,726	76	"	"	7	1 "
28	강술생	" 1,557	77	"	"	7	2 "
29	양병길	" 1,611	78	"	"	5	1 "
30	강진평	" 1,607	70	"	"	6	3 "
31	김화옥	" 1,574	58	"	국졸	4	1 "
32	이신화	" 1,236	77	"	무학	7	3 "
33	이신옥	" 1,235	60	"	"	8	
계	33명						

## 부록 2 .

## 전 통 육 아 법 조 사 서

조사년월일 :        년        월        일

## - 제 1 부 -

## 1) 응답자의 인적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성	명	연령 :	성별 :		
주	소				
연 령 및 성 별					
직 업 ( 과 거 / 현 재 )					
교 육 정 도					
거 주 이 동					
가 족 형 태					
자 녀 수 ( 남 / 여 )					
종 교					
남 편 과 의 동 거 여 부					

## 2) 맥의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은 무엇입니까? (과거/현재)

o 주수입원 :

o 부수입원 :

## 3) 맥의 가정 경제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과거)

구	분	논	발	임	야
자	작				
소	작				
계					

## 제 2 부. 해산전후 습속

## 1. 태몽에 의한 남녀구별법

- 1) 남아의 태몽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2) 여아의 태몽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2. 길몽과 흉몽

- 1) 길몽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2) 흉몽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3. 임신중의 금기

- 1) 음식에 대한 금기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2) 사상에 대한 금기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4. 태아 성별예지법

- 1) 남아의 성별예지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2) 여아의 성별예지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5. 순산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6. 분만장소는 어디였습니까?

## 7. 해산수발 담당자는 누구였습니까?

## 8. 산욕기간은 몇일이였습니까?

## 9. 산후 음식으로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 10. 태줄처리

- 1) 태는 어떻게 가릅니까?
- 2) 태반처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 3) 태반처리 장소와 일시는 언제였습니까?

## 11. 삼신상은 어떻게 차려졌으며 시행은 하셨습니까?

12. 탄생표식으로 금줄은 치셨습니까? 치셨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  
셨습니까?

## 제 3 부. 탄생일 풍속

1. 三日행사는 어떻게 행하여졌습니까?
2. 七日행사는 어떻게 행하여졌습니까?
3. 百日행사는 어떻게 행하여졌으며 시행은 하셨습니까?
4. 돌잔치에 대하여
  - 1) 돌상은 어떻게 차려집니까?
  - 2) 돌잡이의 종류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 3) 돌잔치의 시행은 하셨습니까?

## 제 4 부. 수유

1. 수유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2. 수유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3. 생후부터 3일간의 수유행위는 어떻게 행하여졌습니까?
4. 수유시 태도는 어떠했으며 주의사항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5. 젖을 풍부히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제 5 부. 이유

1. 이유시기는 언제였습니까?
2. 이유 담당자는 누구였습니까?
3. 이유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4. 이유식의 종류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제 6 부. 배변훈련

1. 배변훈련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대변과 소변)
2. 배변 훈련담당자는 누구였습니까?
3. 대소변의 용기와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4. 기저귀 착용은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그 종류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5. 야뇨증 치료법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제 7 부. 자녀관

1. 자녀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원한다면 아들, 딸중에서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2. 아들을 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아들이 없는 경우, 누구를 대리 계승시키겠습니까?

4. 노후에 자녀와 살기를 원하십니까? 산다면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5. 딸 (여성) 의 직업에 대해서는 갖기를 원하십니까?

6.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자녀의 이점과 불리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8.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들, 딸에 대한 기대는 어떠한가요?

9. 가정교육의 담당자는 누구이며, 교육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ABSTRACT

### A STUDY ON THE TRADITIONAL INFANT CARE ON CHE JU ISLAND

Moon Jai-hee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child rearing method has the peculiar types of its own in any society. As a result it can be the element which decide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in the society and, on cheju Island, it can be said that the Island has its own peculiar infant care method.

This paper is based on the survey of aged native prolific women who have had few communications outside the Island, nor have they practiced any of the new religions such as Catholicism or Protestantism.

I collected the data during February of 1986. For this survey I interviewed a total of 33 people women. For the purpose of my study I made Q-A sheets which included the following items.

- (1) Infant care practice before and after delivery.
- (2) Infant care practices and nursing weaning and toilet training.
- (3) Views on sons and daughters.

The main contents of the analysis of the material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survey, Aged native prolific women reminded a similar point as a similarity the practices before and after delivery. This study showed that a dream of forthcoming conception of

aged native prolific women highly recorded to the 76 percentage.

All they , especially , would eat buckwheat as a food after delivery.

2. All infants are reared by breast feeding and feeding time is flexible. weaning time of all infants begins when the next infant is born. The times and attitudes of toilet training usually began with the child's gestures.
3. Views on sons and daughters , Aged native prolific women are male-oriented because of the traditional concepts of ancestors and the succession of the family. As for daughters , these women hoped that their daughters would take occupations before and after marriage , because of economic power.